

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

碩士論文

한국어 보조용언과 중국어의 대응 표현 연구
— ‘(-어) 가다’와 ‘(-어) 오다’를 중심으로



研究生：張祐瑄 撰

指導教授：朴炳善 博士

中華民國

104年7月

論文題目：

한국어 보조용언과 중국어의 대응
표현 연구 — ‘(-어) 가다’와 ‘(-
어) 오다’를 중심으로

研究生：張 祐 瑄

審查委員：_____ (簽章)

_____ (簽章)

_____ (簽章)

指導教授：_____ (簽章)

系主任：_____ (簽章)

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

中華民國 104 年 7 月

論文題目：

한국어 보조용언과 중국어의 대응
표현 연구 — ‘(-어) 가다’와 ‘(-
어) 오다’를 중심으로

研究生：張 祐 瑄

審查委員： 李 京 保 (簽章)

朴 炳 善 (簽章)

秦 連 康 (簽章)

指導教授： 朴 炳 善 (簽章)

系 主 任： 鄭 秋 愛 (簽章)

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

中 華 民 國 104 年 7 月 日

목차

1. 서론	- 5 -
1.1 연구동기 및 연구목적	- 5 -
1.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 17 -
1.3 선행연구	- 18 -
2. 이론적 배경	- 25 -
2.1 보조용언의 문법화	- 25 -
2.1.1 문법화의 개념	- 25 -
2.1.2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	- 26 -
2.2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용법 분류	- 35 -
2.2.1 보조용언 ‘(-어) 가다’의 의미 용법	- 37 -
2.2.1.1 상 의미	- 38 -
2.2.1.2 양태 의미	- 42 -
2.2.2 보조용언 ‘(-어) 오다’의 의미 용법	- 45 -
2.2.2.1 상 의미	- 45 -
2.2.2.2 양태 의미	- 48 -
3. 말뭉치에 근거한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의미 분석 ..	- 50 -
3.1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실제 사용 양상 분포	- 50 -
3.1.1 보조용언 ‘(-어) 가다’	- 50 -
3.1.2 보조용언 ‘(-어) 오다’	- 57 -
3.2 보조용언으로서의 ‘가다’와 ‘오다’와 본용언의 유연성	- 64 -

3.2.1 ‘가다’의 사전적 의미.....	- 64 -
3.2.2 ‘오다’의 사전적 의미.....	- 78 -
4.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 중국어와의 대비	- 88 -
4.1 보조용언‘(-어) 가다’와 ‘(-어) 오다’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	- 90 -
4.1.1 보조용언‘(-어) 가다’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	- 90 -
4.1.2 보조용언‘(-어) 오다’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	- 94 -
4.2 한국어 보조용언‘(-어) 가다’, ‘(-어) 오다’와 중국어 복합방향보어	- 99 -
5. 결론	- 102 -
【참고문헌】	- 106 -



<中文摘要>

本研究的目的是在於能讓以中文為母語的韓語學習者，能夠更快速且深刻理解韓語補助用言 ‘(-어)가다’ 和 ‘(-어) 오다’，並進一步期許藉由本研究的結果，學習者們得以將此文法表現確實的應用於日常生活與對話當中。

「補助用言」是中文母語者學習韓語時，感到困難且容易出現誤用情況的文法範疇之一，尤其韓語之中「補助用言」的運用相當發達，而中文之中雖然亦有與其對應之「補語」的概念，但與韓語的「補助用言」相較之下，兩種文法概念雖然相似，但分別屬於兩個語言的框架之中，仔細相比，兩者概念的判別基準與定義以及使用情況分佈，有著相當程度的落差。韓語「補助用言」之中的 ‘(-어)가다’ 和 ‘(-어)오다’，若將其直接認知為中文的「趨向補語」，而翻譯為「動詞+去」和「動詞+來」的話，反而容易產生誤用，甚至在某些特殊的用法時，是找不到韓中兩語言的對應關係的。

因此本研究從中文母語者學習韓語時面臨困難的「補助用言」範疇之中，選出 ‘(-어)가다’ 和 ‘(-어)오다’ 這一組類型，以中文母語者的角度對其各種用法進行分析，並依循找出其對應的中文。首先，為了釐清韓語補助用言 ‘(-어)가다’ 和 ‘(-어)오다’ 對於中文母語者的學習困難，將會依據先行研究(既存研究)鉅細靡遺地揭露韓語補助用言的各種特色，以及其中 ‘(-어)가다’ 和 ‘(-어)오다’ 的各項用法分類。接著，將語言資料庫的內容以抽樣篩選的方式，檢視補助用言 ‘(-어)가다’ 和 ‘(-어)오다’ 各種用法的使用分佈情形，進而比對先行研究之中的分類法是否符合語言使用者的使用情形。最後，將整理韓語補助用言 ‘(-어)가다’ 和 ‘(-어)오다’ 所對應的各項中文表現，並概略的比較韓語與和中文之間的使用方式之異同。

關鍵字： 韓語學習、補助用言、去、來、韓中語言比較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help Chinese native speaker who learn Korean understand the Korean auxiliary verb faster and further. It is also expectable that through the result of this research, learners of Korean can apply this knowledge on daily conversations and situations.

“Auxiliary verbs” are one of the most difficult obstacles or misusing in the grammatical field Chinese native speakers may encounter when learning Korean. Though the concept of complement in Chinese may be a correspondence to Korean’s auxiliary verbs, there are still great differences in the standard of discrimination, definition, and the distribution of usage in these two grammatical concepts. Especially regarding the high frequency of using auxiliary verbs in Korean, these two concepts may possess similarities, but they belong to two different languages.

The usage of “-a/e kata” and “-a/e ota” in Korean may be easily mistaken if users translate it directly into the directional complement in Chinese, which are “verb + qu(去)” and “verb + lai(來)”. Moreover, under some special circumstances, there could be no correspondent usage in Korean and Chinese.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s on “-a/e kata” and “-a/e ota” of Korean auxiliary verbs, and analyzing their correspondences in Chinese in different situations from an aspect of Chinese native speaker.

First of all, in order to clarify the difficulties on Korean auxiliary verbs (“-a/e kata” and “-a/e ota”) to Chinese speakers learning Korean, this paper will explain every features of Korean auxiliary verbs and the categories of usages of “-a/e kata” and “-a/e ota” according to existing researches. Secondly, by sampling and screening data in language database, this paper will give a view on every usages of “-a/e kata” and “-a/e ota” and their distribution of usage; furthermore, it will compare whether the categorization of existing researches match the real circumstances of Korean users. Finally, this paper will straighten out correspondent

expressions of “-a/e kata” and “-a/e ota” in Chinese and generally compar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ir usages in Korean and Chinese.

Keywords: Korean learning, auxiliary verbs, qu(去), lai(來), comparison on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다.

보조용언은 중국어 화자에게 습득하기 어렵고 많은 오류를 보여주는 문법 범주 중에 하나이다. 한국어 보조용언과 대응될 수 있는 중국어 문법 범주는 보어(補語)이다. 한국어 보조용언이 다양한 것처럼 중국어 보어도 다양한 편이다. 두 언어는 보조용언에 대한 정의와 판별 기준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서로 유사하긴 하지만 그 의미 용법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중국어 보어의 범주가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의 보조용언 중에 ‘(-어) 가다’와 ‘(-어) 오다’가 있는데, 이 보조용언은 중국어로는 ‘V-去’와 ‘V-來’로 대응하는가 하면 오히려 대응하는 형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어 보조용언이 어떠한 특성이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그리고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에 대한 분석된 유형에 의하여, 다시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사람들의 실제 사용 양상이 각기 어떠한 분포를 갖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기존 분류했던 것들의 실제적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어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는 각 의미 용법에 대응되는 중국어 보어 표현을 정리한다. 만약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이 보어가 아닐 경우 어느 문법 범주에 해당되는지도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대응되는 현상을 통해 한·중 두 언어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할 것이다.

키워드 : 보조용언, ‘(-어) 가다’, ‘(-어) 오다’, 한국어 학습, 한·중 언어비교

1. 서론

1.1 연구동기 및 연구목적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어를 배울 때 보조용언을 제대로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보조용언은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표현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 보조용언은 보조용언에 대한 인식이 다른 중국어권 학습자에게는 습득하기 어렵고 많은 오류를 보여주는 문법 범주이다. 최해주(2006)에 의하면 많은 한국어 학습자는 보조용언을 배운 후에도 제대로 내재화가 되지 않아서, 특히 일부 보조용언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다.¹ 비록 중국어에서도 한국어 보조용언과 비슷한 문법 범주가 있지만 중국어권 학습자에게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모국어 화자가 모국어에 대한 언어 표현에 있어서 직관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도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설명이 가능한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보조용언을 습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想, Aspect)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한국어가 교착어인 반면에 중국어는 고립어이다. 고립어인 중국어 화자에게 어미 변화가 일어나는 한국어를 습득하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한국어 문법 사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¹ 최해주(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보조용언의 의미 범주 설정 및 그 활동 방안”,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pp. 125~159

시제와 상에 관련된 것이다. 교착어인 한국어에서는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존재하며 어미변화만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단순히 시제만 나타내는 문법 범주가 존재하지 않고 상과 같이 합쳐서 사용하며 동사 뒤에 了(완료), 過(경험), 著(진행)을 추가하여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의 영향으로 중국어 화자에게는 시제와 상 이 두 가지 문법 개념을 가지고 있는 표현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a. 我做完這項工作(了)。

저는 이 일을 하였다.

b. 我做完(了)這項工作。

저는 이 일을 해 냈다.

c. 我正在做這項工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다.

d. 我將會做這項工作。

저는 이 일을 할 것이다.

(1a)과 (1c)를 보면 두 문장이 과거와 현재의 시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어미변화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시간 부사)를 더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1a)과 (1d)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부사를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구분한다. 또한 (1a)과 (1b)를 보면, 두 문장은 아주 비슷하지만 (1a)은 과거(시제)만 표시하고, (1b)는 완료(상)를 나타낸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시제와 상을 표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어 화자는 이 오묘한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한다.²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는 상과 관련된 문법 범주이다. 그래서 보조용언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상의 개념부터 잘 이해해야 된다. 이로 인해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상의 개념을 포함한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에 대한 의미 용법을 제대로 습득하려면 상과 시제 이 두 가지 문법 개념을 잘 구분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보조용언과 중국어 보어에 대한 문법 범주 설정은 차이가 있다.

한국어 보조용언과 대응될 수 있는 중국어 문법 범주는 보어(補語)³이다. 한국어 보조용언이 다양한 것처럼 중국어 보어도

² 중국어에서 “了”가 위치하는 자리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了₁”는 동사 뒤에, 목적어 앞에 위치할 때 ‘완료’나 ‘실현됨’을 의미한다. 둘째, “了₂”는 한 문장의 마지막 성분에 위치할 때 ‘상태 변화’와 ‘확정함’을 의미한다.

예 1) 我在中國住了三十年，我學會了一點東方人怎樣交友與相助。(실현됨, 완료)

예 2) 我都四十歲了，到了不惑之年，還這樣。(상태 변화, 완료)

예 3) 兩年沒見你，你跟以前不一樣了。(상태 변화)

참조 : 房玉清(2008), 實用漢語語法, 北京 : 北京語言大學出版社, 頁 303~305

³ 중국어 보조용언은 ‘보어(補語)’라고 지칭해 왔으나 한국어 학교 문법에서 가르치는 ‘보어’의 개념과 전혀 상관없다.

다양한 편이다. 두 언어는 보조용언에 대한 정의와 판별 기준이 매우 비슷하다. 한국어 보조용언은 독자적으로 문장의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본용언 뒤에 붙어서 본용언의 뜻을 도와주는 용언이다. 그리고 본용언을 제거하면 그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나, 보조용언은 그것을 제거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또한 본용언의 품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해당된다. 중국어 보어는 본용언인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주로 본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맡거나 본용언의 결과나 상태를 설명하는 용언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서로 유사하긴 하지만 그 의미 용법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중국어 보어의 범주가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⁴

또한 한국어 보조용언 중에 ‘(-어) 가다’와 ‘(-어) 오다’가 중국어로는 ‘V+去’와 ‘V+來’로 대응할 때도 있지만 대응되는 형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에서는 방향보어(趨向補語)가 또 다시 ‘단순방향보어(簡單趨向補語)’와 ‘복합방향보어(複合趨向補語)’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분류에 대응되는 것은 한국어에서는 합성동사와 보조용언이 있다.

(2) a. 친구가 걸어 와요.

⁴ 중국어 보어와 본용언이 결합할 수 있는 형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용언+보어’로 결합하고, 다른 하나는 ‘본용언+得+보어’로 결합한다. 그러나 두 번째 결합 방법으로 형성된 보어는 대부분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다. 이로 인해 중국어 보어의 범주는 한국어 보조용언의 범주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본다.

예 1) 我覺得今天天氣很好。

오늘 날씨가 좋다고 생각한다.

예 2) 這次的作文你寫得很好。

이번에 작문 숙제는 아주 잘했다.

朋友走過來(了)。

b. 숙제를 다 해 가요.

作業快要做好(了)。

c. 小明從圖書館借來一本書。

小明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어요.

d. 誰有問題請把手舉起來。

질문이 있는 분 손 드세요.

(2a)에서는 한국어로 보면 합성동사에 해당되는데 중국어로 보면 방향보어에 해당된다. (2b)에서는 한국어로 보면 보조용언에 해당되는데 중국어로 보면 방향보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2c)에서는 중국어로 보면 단순 방향보어에 해당되어, 한국어로 보면 역시 단순 방향보어에 해당된다. (2d)에서는 중국어로 보면 복합 방향보어에 해당되는데 한국어로 보면 보조용언이 아니라 단순한 일반 동사에 해당된다.

또한 보조용언과 합성동사의 정의에 따르면 보조용언에서 나타난 ‘가다’와 ‘오다’는 앞에 본용언을 보조하는 용언이고, 합성동사에서 나타난 ‘가다’와 ‘오다’는 앞의 동사와 동등한 위치에 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는 ‘상태의 변화’나 ‘상태의 지속’과 같은 역할을 할 때 보통 복합 방향보어와 대응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런 경우에는 중국어 복합 방향보어는 방향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결과 의미와 상태 의미 그리고 추상적인 의미를 더 많이 나타낸다. 반대로는 한국어 합성동사와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단순 방향보어는 대부분 방향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합성동사는 중국어 단순 방향보어와 대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 (3) a. 그 사진은 몇 해의 세월을 지니고 있는지 약간
 누렇게 퇴색해 가고 있었다. (손세모들, 1996)
 這張照片不知道經歷了多少歲月的逝去，漸漸地發黃退
 色了。
- b.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껴왔다. (박선옥, 2005)
 他一直都有感受到她的愛。
- c. 그는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他跳進水裡了。
- d. 철수는 강을 건너갔다.
 철수越過了江水。

(3a)는 한국어로 보면, 상태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3b)에서도 상태 지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보조용언은 중국어 복합 방향보어와 대응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3c)과 (3d)는 한국어로 보면, 상태 변화나 상태 지속이라는 의미보다 이동적인 방향성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해서 한국어 합성동사에 해당되고, 중국어로 보면 역시 단순 방향보어에 해당된다.

셋째,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보조용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조용언에 대한 의미를 단순히 보조의 의미로만 파악하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다. 보조용언이 실현되는 상황을 고려한 화용론적 의미 분석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중에 어느 것은 상의 의미 표현이 더 크고, 어느 것은 양태의 의미 표현이 더 큰지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보조용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에 의미 용법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3>⁵

V-아/어 오다 :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한국어 공부해 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10년 동안 사귀어 왔어요. 김 교수님께서 2년 동안 한국 역사책을 써 오셨어요.
다 V-아/어 가다 :
밥이 다 되어 가요. (밥이 거의 다 되었어요.) 숙제가 다 끝나 가요. (숙제를 거의 다 했어요.) 그 책을 다 읽어 가요. (그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⁶

V-아/어 가다 :
어떤 행위나 상태, 상태 변화가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내는 표현. 경기가 회복되어 가니 다행입니다. 다 먹어 가니 잠시만 기다려.
V-아/어 오다 :
어떤 행위나 상태, 상태 변화가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내는 표현. 그들은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내 온 이웃이야. 점차 날이 밝아 오니 떠날 준비를 해라.

⁵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한국어 3”, 서울 : [주]문진미디어, p.183

⁶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용법편”,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pp.514~515 & pp.541~542.

● <한국어 학습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⁷

<p>V-아/어 가다 :</p> <p>동작이나 상태 등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나타낸다.</p>
<p>줄음을 참아 가면서 운전을 했다.</p> <p>일이 잘 되어 가니?</p> <p>나는 그 사람과 10년 동안 사귀어 왔어요.</p> <p>김 교수님께서서는 2년 동안 한국 역사책을 써 오셨어요.</p>
<p>V-아/어 오다 :</p> <p>어떠한 행동이나 상태가 현재를 향하여 계속 진행되는 것을 나타낸다. 일정한 상태나 현상이 시작되어 진행되는 것을 나타낸다.</p>
<p>그 노인은 자식들을 위해 장사를 하면서 늙어 왔다.</p> <p>찬물에 손을 넣으니 뼈까지 시려 왔다.</p>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⁸

<p>V-어(아,여) 가다/오다 :</p> <p>동작의 연속적 반복을 표시한다. 또 화자를 기준으로 하여 동작의 이동 방향에 따라 표시한다.</p>
<p>버스가 이쪽으로 달려 옵니다.</p> <p>저는 그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셔 왔어요.</p> <p>앞으로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 갈 겁니다.</p> <p>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늙어갑니다.</p>

⁷ 이회자, 이종희(2008), “한국어 학습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서울 : 한국문화사, pp.343~344 & pp.367~368.

⁸ 임호빈(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p.230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재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해 편찬한 학습용 사전조차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에 대한 각 의미 용법을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가 가진 각 의미 용법을 제대로 습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넷째, 한·중 두 언어에서 ‘가다’와 ‘오다’에 대한 기준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는 문법화가 진행되면서 원래 [+방향], [+이동] 의미 자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로 변한다. 파생된 각 의미 용법에서도 여전히 원래 이동동사로서의 ‘가다’와 ‘오다’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 설정이 들어가 있다. 즉, ‘가다’는 ‘기준점에서 멀어지는 이동’이고, ‘오다’는 ‘기준점에서 가까워지는 이동’이라는 원칙에서 완전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적인 공간이동은 문법화가 진행되면서 추상적인 공간이동으로 전환된다.

‘가다’와 ‘오다’의 기준점은 일반적으로 화자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화자, 청자, 제3자 그리고 추상적인 거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점 중심을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 맥락에서도 각 언어권마다 그 언어권 사용자들이 직시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다’와 ‘오다’의 기준점 설정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모국어 화자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가 이동 동사 ‘가다’와 ‘오다’에 대해서 자신의 모국어에서와 같은 기준점을 가지고 실제 한국어 상황에서 사용할 때 어색한 표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중국어권 학습자가 ‘가다’와 ‘오다’에 대한 기준점이 일치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 이동동사로서의 ‘가다’와 ‘오다’

(4) a. [부엌에서] 와서 밥 먹어라.

[在廚房] 來吃飯吧。

b. [거실에서] 곧 갈게요. / *올게요.

[在客廳] 我馬上過去 / 就來⁹。

(4b)에서는 한국어로 보면, 화자를 기준으로 삼고 ‘가다’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중국어 화자에게 ‘去(가다)’나 ‘來(오다)’도 사용하기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어권 화자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곧 올게요.’라고 대답하면 한국어권 청자는 그것을 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5) a. [교실에서] 영희야, 선생님께서 “영희에게 지금 교무실로 오라고 해라.” 하셨어. (이연옥, 2011)

[在教室] 영희, 老師說: 「讓英희現在來辦公室。」

b. [교실에서] 영희야, 선생님께서 너 지금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어.

[在教室] 영희, 老師讓你現在去辦公室。

⁹ 예문(4b)는 원작(이연옥, 2011)에 의거하여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연옥에서는 중국어 표현에서 ‘我馬上就來’만 늘어놓는데 필자 생각에는 ‘我馬上過去’로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두 가지 표현을 같이 비교하도록 하겠다.

(5a)와 (5b)에서는 한·중 두 언어의 사용 양상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간접화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전달자’가 자신의 발화시 위치를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원래 화자’가 사용한 이동 동사를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전달자의 현재 발화시 위치에 기준점을 두고 ‘去’를 사용하여 전달하여, 이로 인해 한국어권 청자에게는 선생님이 교무실에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6) [A와 B가 박물관에 다녀온 다음날 만나 이야기하는 상황]

[A和B去博物館後，隔天見面的對話情況]

a. 영희도 어제 박물관에 갔었다고/왔었다고 하더라.

▪ 聽說英희昨天也去/*來博物館了。▪

b. 응, 남자친구랑 같이 *간/온 거 내가 봤어.

是阿，我見到他和他男朋友一起去(那裡)/*來(那裡)了。

한국어에서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指示代名詞)가 세 가지 있다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두 가지 밖에 없다: ①여기(這裡):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킴. ②거기(那裡): 듣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킴. ③저기(那裡):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킴. (6a)와 (6b)에서는 두 언어의 사용 양상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중국어에서는 현재 발화시 위치에 기준점을 두어, 어제 갔던 박물관은 ‘거기’라는 지시 대명사로 삼아야 된다. 또한 중국어에 있어서 ‘去’와 ‘來’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동 방향성 제약되기 때문에 ‘去+這裡’나 ‘來+那裡’로 조합하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된다.

● 보조용언으로서의 ‘가다’와 ‘오다’

- (7) a. 경기가 회복되어 가니 다행입니다.
經濟就快要恢復了，真是太好了。
- b. 경기가 회복되어 왔으니 다행입니다.
經濟正在漸漸恢復當中，真是太好了。
- c. 일이 끝나 간다.
事情就快要完成了。
- d. *일이 끝나 왔다.
?事情已經完成了。
- e. 숙제를 다 해 간다.
?作業就快要完成了。
- f. 숙제를 해 왔다.
作業已經完成了。

중국어권 학습자는 한국어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를 인식할 때 대부분 시간이동의 방향성으로 구분한다. 즉, ‘(-어)가다’에서 시간의 이동은 지금부터 미래까지 가는 것이고, ‘(-어)오다’에서 시간의 이동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는 것이다. (7a)과 (7b)는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법적인 표현이고 중국어권 학습자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그리고 중국어권 학습자는 발화시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7c)는 성립되는 듯이 (7d)도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7d)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또한 (7e)는 ‘(-어)오다’로 바뀌 (7f)가 되며 매우 어색한 표현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모국어의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어)가다’와 ‘(-어)오다’에 대해 잘 파악하기 어렵고 오류를 나타내기도 한다.

외국어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최종 목표는 최대한 모국어 화자처럼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언어를 완전히 구사하려면 그 언어의 문법 구조뿐만 아니라 그것의 의미 용법에도 관심을 가지고, 각 상황에 적절하게 언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로서 학습하기 힘든 한국어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 표현에 대하여 그 의미 용법과 그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Corpus 코퍼스)자료 분석을 통한 계량적 접근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 자료이다. 그 중에서 형태소 정보가 부착된 총 1억 1천만여 규모의 현대 한국어 말뭉치를 이용한다. 본 연구는 수량이 방대한 민족문화연구원의 현대 한국어 말뭉치 용례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순구어(純口語)와 신문 두 가지의 장르를 범위로 설정하여 검색된 ‘(-어)가다’와 ‘(-어)오다’구문 약 7만개 구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규모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의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한국어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의 각 의미 용법의 실제적 양상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각 의미 용법은 계량적으로 보면, 어떠한 용법의 사용빈도가 높은지 어떠한 용법이 자주 쓰이지 않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가 가진 여러 의미 용법의 사용 분포 양상도 명시적으로 밝힐 수 있다. 또한 ‘(-어) 가다’와 ‘(-어) 오다’가 보조용언으로서의 여러 용법들은 본용언으로서의 용법들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밝힐 수 있다.

연구내용에 있어서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어 보조용언이 어떠한 특성이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그리고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에 대한 분석된 유형에 의하여, 다시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사람들의 실제 사용 양상이 각기 어떠한 분포를 갖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기존 분류했던 것들의 실제적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어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는 각 의미 용법에 대응되는 중국어 보어 표현을 정리한다. 만약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이 보어가 아닐 경우 어느 문법 범주에 해당되는지도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대응되는 현상을 통해 한·중 두 언어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할 것이다.

1.3 선행연구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에 대한 한·중 대응 표현 연구들에는 왕례량(2006), 이남(2009), 이양(2014) 등이 있다.

왕례량(2006)은 언어 표현할 때 사용빈도가 높은 보조용언이 한국어에만 있을 리가 없고 다른 언어 중에도 많이 쓰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보조용언 구문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한국어 보조용언들이 중국어에서 어떠한 문법 범주로 표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언어를 번역하는 결과에서 보이는 것은 한국어 보조용언과 중국어 문법 범주와의 대응 관계는 일대일(一對一)의 관계가 아니라 일대다(一對多)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한국어 보조용언 각 유형별에 중국어로 표현될 때에는 일치하는 결과를 찾기 힘들고 규칙을 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런 대응형식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한국어에서 보조용언이라는 문법 범주의 성립은 완벽하지 않고 재수정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어 보조용언은 매우 다양하고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래서 보조용언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문법 범주를 찾는 것은 마치 번역할 때 한 마디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번역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욱 어색해진다. 서로 다른 체계의 언어들이 완전히 일치된 대응 형식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언어는 민족성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라서 언어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보조용언 전체에 대한 일치한 대응을 찾기보다는 각 유형별로 해당되는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이 연구 중에서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없고 해당되는 부사조차 없는 결과가 나타내는 경우를 보면 이 연구 자체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¹⁰ 왕례량(2006)이 정리된 한국어 보조용언과 중국어 문법 범주의 대조표의 일부분이다.

한국어 보조용언		중국어 문법 범주	
범주	형태	문법 범주	형태
진행	가다	-	-
	오다		
	있다	중국어 부사	正在, 正, 在
		중국어 조사	呢
	계시다	중국어 부사	正在, 正, 在

이런 연구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한·중 대응 결과 중에서 참조할 만한 것은 한국어 보조용언은 중국어로 대응하는가 하면 대부분 표현할 때 부사, 조사, 조동사, 그리고 개사(介詞)¹¹로 나타내는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남(2009)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보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으나 한국어 보조용언에 해당되는 중국어

		중국어 조사	呢
--	--	--------	---

¹¹ 왕례량(2006)이 정리된 한국어 보조용언과 중국어 문법 범주의 대조표 중에서 개사에 관련된 부분이다.

한국어 보조용언		중국어 문법 범주	
범주	형태	문법 범주	형태
봉사	주다	중국어 개사	給
	드리다		
사동	하다	중국어 개사	讓, 把
	만들다		

중국어에서는 많은 개사(介詞)가 동사에서 발전되어 나왔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개사와 동사는 전혀 다르다. 개사는 성분들 사이에 끼어서 기능을 하는 사를 말한다.

예 1) 我住在台灣。

나는 대만에 산다.

예 2) 他把門關上了。

그 사람은 문을 닫았다.

예 3) 你給我們講一個童話故事吧。

우리에게 동화이야기를 해 주세요요.

참조 : 房玉清(2008), 實用漢語語法, 北京 : 北京語言大學出版社, 頁 56~57。

표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보조용언 가운데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고) 있다’, ‘(-어) 가다’와 ‘(-어) 오다’를 중심으로 중국어 대응 표현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 ‘V+(-어) 가다’와 ‘V+(-어) 오다’는 보조용언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합성동사로 나타나기도 해서 ‘(-어) 가다’와 ‘(-어) 오다’에 대해서는 한국어 보조용언과 합성동사 두 가지 문법 범주를 중심으로 그들의 의미 용법을 살펴보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표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한국어 보조용언에 있어서는 주로 박선옥(2005)이 제시한 ‘상 의미’와 ‘양태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고 ‘상태의 변화 지속’과 같은 ‘결과 의미’와 ‘상태 의미’ 그리고 ‘비유적인 의미’에 해당되는 중국어 문법 범주가 복합 방향보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에 한국어 합성동사는 처소나 위치를 표현하여 방향성과 이동성을 강조하는 언어 표현이라서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문법 범주가 단순 방향보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한국어 보조용언과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표현을 보면, 복합 방향보어 이외에 주로 시간 부사어나 정도 부사어와 같이 붙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은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어) 가다’의 중국어 대응 표현

표 1

한 국 어	중 국 어
① ‘동작의 지속’의 ‘(-어) 가다’	정도 부사 - ‘逐漸, 漸漸地’(점점)
② ‘상태 변화의 지속’의	② ‘형용사+去’

‘(-어) 가다’	변화의 자질을 가진 표현	② ‘漸漸地’+ V
③ ‘단속적 반복’의 ‘(-어) 가다’		③ ‘變+ 형용사’
		‘一+ 단위+ 一+ 단위’-- 첩어

<표 2> ‘(-어) 오다’의 중국어 대응 표현

표 2

한 국 어	중 국 어
① ‘지속’의 ‘(-어) 오다’	‘一直(계속)’, ‘漸漸...起來了’(점점...시작했다)’
② ‘단속적 반복’의 ‘(-어) 오다’	‘一直’, ‘從古至今’, ‘越來越...’

그러나 이 연구가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에 대한 밝히는 새로운 사실은 위의 표에 제시된 것으로 보면,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각 의미 용법을 다시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선행연구 내용에 제시된 한국어 예문들이 중국어로 번역한 것뿐이다. 그리고 표2에 제시된 한국어 보조용언 ‘(-어) 오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보면, ‘一直’와 ‘從古至今’, 그리고 ‘越來越...’이 세 가지 표현을 같은 분류에 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중국어에서 ‘一直’와 ‘從古至今’은 어떠한 일이나 상태가 변화없이 원래 있는 그대로 지속한다는 뜻인데 ‘越來越...’은 어떠한 일이나 상태가 지속적인 변화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같은 분류에 들어놓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또한 한국어 합성동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단순 방향보어는 서로 구조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어 합성동사의 역할을 할 때, ‘가다’와 ‘오다’는 앞에 위치한 동사와 한 단어가 되어서 중간에 다른 성분이 들어가지 못 하는 반면에 중국어 단순 방향보어 ‘V+去’와 ‘V+來’는 꼭 그렇게 조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에는 두 개의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가도 되고, 심지어 어떤 때에는 꼭 두 개의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가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논문 안에 제시된 중국어 번역문으로 보면, 두 개의 동사 사이에 일부러 다른 성분이 들어가는 것처럼 오히려 어색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문을 이용하여, 더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본다.

이양(2014)에서는 강범모·김홍규(2009)에 나타나는 보조용언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고, 그 중에 ‘(-어)오다’는 8번째로 빈도가 높고 ‘(-어)가다’는 10번째로 고빈도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보조용언을 배우거나 번역할 때 반드시 ‘(-어)가다’와 ‘(-어)오다’의 각 의미 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어 ‘(-어)가다’와 ‘(-어)오다’는 보조동사의 역할을 할 때 여전히 이동동사 ‘가다’와 ‘오다’가 가진 어휘적인 의미에 의해 설정된 기준점에 따라 방향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다’와 ‘오다’의 ‘시간적 의미’, ‘공간적 이동 의미’, 그리고 ‘시간적 이동 의미’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가다’와 ‘오다’는 이동동사로서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보조동사의 의미 용법을 세분화하였다. 한국어 보조용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선행동사는 상태동사, 심리동사, 행위동사와 완성동사, 변화동사, 그리고 순간동사 다섯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결합된 보조동사 ‘(-어)가다’와 ‘(-어)오다’는 ‘지속’의 의미 중에 ‘상태 변화의 지속’, ‘일정 기간 동안 상태의 지속’, ‘동작의 지속’, ‘동일한 유형의 사건의 반복’, 그리고

‘완료된 행위’등 의미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각 의미 용법과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주로 시간부사, 정도부사, 첩어, 복합 방향보어 구성 ‘V+ 下去/下來/過來/起來’, 그리고 결과 보어 구성 ‘V+ 完’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있어서는 이기동(1977)과 김영태(1997)가 연구한 방법을 바탕으로 하고, 폭 넓은 선행동사를 세분화한 결과에 따라 선행용언의 의미 별로 다시 보조동사 ‘(-어) 가다’와 ‘(-어) 오다’의 각 의미 용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 들어가 있는 보조동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에 대한 분석은 이남(2009)과 똑같이 박선옥(2005)에 제시된 여러 예문을 이용해서 이남은 밝힌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에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이라는 결론과 비슷한 부분이 좀 많고 새로움이 하나밖에 없어서 새로운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¹²

¹² 이양의 논문에 제시된 새로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중에서 이남과 다른 부분이 하나밖에 없다.

한 국 어	중 국 어
① ‘동작의 지속’의 ‘(-어) 가다’	정도 부사 - ‘逐漸, 漸漸地’(점점)
② ‘상태 변화의 지속’의 ‘(-어) 가다’	변화의 자질을 가진 표현 ② ‘형용사+ 去’ ② ‘漸漸地’+ V ③ ‘變+ 형용사’
③ ‘단속적 반복’의 ‘(-어) 가다’	‘一+ 단위+ 一+ 단위’-- 첩어
④ ‘완료된 행위’의 ‘(-어) 가다’	‘快.....完了’

2. 이론적 배경

2.1 보조용언의 문법화

2.1.1 문법화의 개념

문법화는 많은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문법 변화 과정에 대한 유용한 설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언어학자들은 중국 언어학자들의 영향을 받음으로 문법소들을 ‘허사(虛詞)¹³’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문법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유창돈(1962)에서 ‘허사화(虛詞化)’라는 이름부터 문법화 연구해 왔다. 한국어의 문법화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어휘적 의미를 가진 실사(내용어)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문법적 의미를 가진 허사(기능어)로 바뀌는 현상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 왔다.¹⁴

문법화는 문법 변화의 중요한 기제로 간주되어 왔다. 문법화 현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 1) 독립적인 하나의 낱말이 그 자격을 잃어 버리고, 통사론적 구성에서 형태론적 구성으로 변하면서 의존적인 어휘 혹은 문법적인 요소¹⁵로 되는 것이다. (고영진, 1997: 30)

¹³ 중국어의 어휘는 일찍이 허실(虛實)의 구별이 있었는데, 소위 실사(實詞)는 실제적인 어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품사를 일컫는 것이고, 허사(虛詞)는 실제적인 어휘의 의미를 지니지 않고 문법적 의미만 있으며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역할을 하는 품사를 일컫는 것이다.

¹⁴ 호광수(1999),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 조선대 인문과학연구, 제 21 집, pp. 391~409

¹⁵ 문법적인 요소는 그 말 대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문장 성분이고, 실질적인 어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 1) 일이 끝나 간다.

예 2) 숙제를 다 해 간다.

- 2) 주로 어휘적인 기능을 하던 것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거나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안주호, 1997: 15)
- 3) ‘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에서 ‘더’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안주호, 1997: 15)

2.1.2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

문법화의 개념은 매우 포괄하다는 이유가 문법화는 고정된 문법 변화의 양상이 아니라 과정적인 문법 변화이기 때문이다.

호광수(1999)는 한국어 보조용언의 문법화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그림 1>참조). 제1단계는 보조용언화 단계이다. 1단계에서 자립적인 어휘 의미가 추상화를 거쳐 다의화되면서, 의존적으로 쓰이게 된다. 그런데 여전히 자립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본용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 (예문 8a, 8b참조) 또한 한국어 보조용언은 대부분 이 보조용언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2단계는 접어화 단계이다. 2단계에서 보조용언이 선·후의 요소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의존도가 높아지고 통합된 형식으로 쓰이는 단계이다. 접어는 자립적 어휘소와 유연성을 갖기는 하지만, 문법화가 진행되어 자립적 의미를 상실한 뒤, 의존적으로 쓰인다. 접어는 아직 융합¹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전한 문법소로

예 3) 경기가 회복되어 왔으니 다행이다.

¹⁶ 두 이상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 버리고 새로운 단어가 되고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접어화는 선·후의 요소가 융합되지 않은 반면에 접사화는 선·후의 요소가 융합되었다.

예 1) 없어 지다. (접어화)

예 2) 헤어 지다. (접사화)

매길 수 없다. 그러므로 접어화 단계가 되면 자립적인 의미로의 해석은 전혀 불가능하고 추상적인 의미로만 해석된다. (예문 8c, 8d참조) 한국어 보조용언은 접어화 단계까지 진전한 용례는 많지 않고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지다’라고 지적하였다. 제3단계는 문법소화 단계이다. 3단계에서 선·후의 요소는 융합이 이루어져 어미, 접미사, 조사 등 고정된 형태로만 쓰이고 완전히 다른 범주로 변한다. 의미면에서도 원래 어휘소와의 연관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어, 자립형태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단계이다. (예문 8e, 8f참조) 한국어 보조용언은 문법화 제3단계인 문법소로 발전된 예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하였다.¹⁷

- (8) a. 찬물을 조금씩 끼었다 보면 얼마 안 가 물이 차갑다는 걸 모르게 된다.
- b. 이 대화에서 입상하기는 클리버린 일이다 싶어 굳은 얼굴로 기운 없이 소품만 만지작거린다.
- c. 살짝 밀었으나 그는 힘없이 쓰러졌다.
- d. 이모는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엄마야!’ 하면서 다리를 한껏 쳐 들었고 그대로 논둑길에 엎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엎어지다’는 ‘엎다+지다’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헤어지다’는 ‘헤다+지다’로 분석이 불가능하다.

¹⁷ 김미영(1998)에서 접사화 단계까지 발전되었다고 보는 보조용언은 ‘-어 오다’, ‘-어 가다’, ‘-어 대다’, ‘-어 쌓다’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접사화 단계에서 접사 구성이라고 다루고 있는 대부분 방언형이다.

예 1) 그 남자가 계속 담배를 피뎡께.

예 2) 땅을 한 시간 동안 계속 파뎡께.

예 3) 며느리가 반갑게 나와가 캐싸매.

예 4) 신문 잡지 이런 기 세싸서.

- e. 그는 달라기를 하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 f. 파장이라 장꾼들도 하나 둘 헤어지고 있었다.



<그림 1>

최대희(2002)는 문법화의 단계는 문법화의 정도성으로 파악하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다고 지적하였고 문법화를 세 단계를 설정하였다 (<그림 2>참조). 1단계는 2단계에 비해 더 어휘적인 내용이 강하고, 3단계는 2단계에 비해 문법적인 기능이 더 강하다고 이해해야 한다. 문법화 단계의 설정 기준은 구문론적 관점을 검토해보고, 의미를 고려한다.

제1단계는 통어적 구성 <으뜸 풀이씨>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어휘적인 의미가 강하다. 제2단계는 형태·통어적 구성 단계 <으뜸 풀이씨+매인 풀이씨>이다. ‘V1+V2’ 구조는 통어론적 구성이지만, 은유¹⁸와 재분석¹⁹에 의해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된다. 이 단계에서는 어휘적 의미보다 문법 내용이 강하다. 제3단계는 형태적 구성 <문법 요소>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법화가 완료되어 형태적 구성으로 인식되고, 문법적 내용이 강하다.

¹⁸ 문법화가 진행되면서 어휘 의미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에서 ‘심리적인 것’으로,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변해 가고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거나 파생된다는 뜻이다.

¹⁹ 둘 이상의 구성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림 2>

박주형(2013)은 문법화 현상을 논하는 데에 관련된 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주로 일관성 원리²⁰, 연속변이²¹, 단일방향성 가설²², 주관화²³, 문법소의 고빈도²⁴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러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보조용언의 문법화 양상은 의미적 측면, 형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용언에서 문법화된 보조용언이 일정 방향으로 겪게 되는 문법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그림 3>참조). 용언들은 문법화가 점차

²⁰ 모든 언어들의 규칙형태들 혹은 언어 사용자의 논리 방식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즉, 현재 언어들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과거의 언어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으며, 현재 언어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변화들은 과거의 언어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언어들에게서도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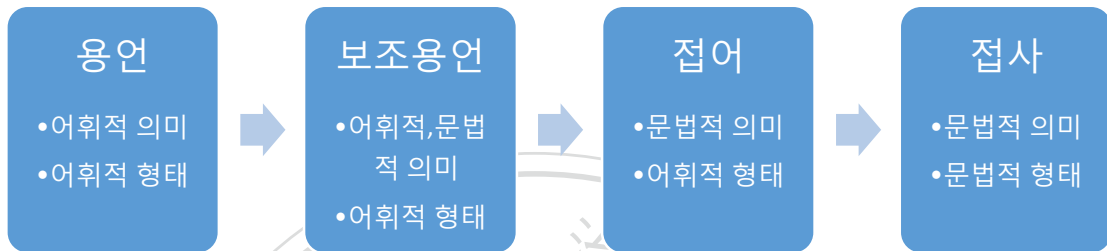
²¹ 연속변이란 용어는 Halliday(1961)에서 처음으로 언어학 이론에 적용되었다. 문법화 현상이 단절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서 나타남을 의미한다.

²² 단일방향성 가설이란 문법화는 의미나 음운형태에 있어서 그 변화의 방향이 단일방향적이라는 가설이다.

²³ 어떤 낱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그것이 가진 여러 환경들과 만났을 때 개인의 내적 평가나 인식에 의해 재분석되고, 그것이 주관적 신념이나 태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정도로 실현되는 것이다.

²⁴ [V1+V2]구성 중에서 선행하는 용언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 빈도가 높다면, 다른 용언과의 결합은 제약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문법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진행되면서 각 단계까지 분화되는데 보는 바와 같이 IV단계는 가장 문법화가 고도로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IV단계는 필수적으로 겪는 것이 아니며, 또 그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림 3>

그리고 분류한 네 가지 유형 (<표3>참조)의 보조용언들은 각 문법화 경로에 놓아 보았다. 또한 각 유형의 개별 보조용언이 보이는 문법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3> 보조용언의 네 가지 유형

표 3

유형	보조용언
1)순수한 보조용언이면서 어휘성이 강한 것	-어 가다, -어 계시다, -어 드리다, -어 오다, -어 있다
2)순수한 보조용언이면서 문법성이 강한 것	-고 계시다, -고 있다, -고 나다
3)예외를 가지면서 문법성이 강한 것	-어 놓다, -고 말다, -지 못하다, -어 버리다, -어 보다, -지 말다, -고 싶다,

	-어 쌓다, -지 아니하다
4)예외를 가지면서 어휘성이 강한 것	-어 나다, -어 내다, -어 대다, -어 두다, -어 먹다, -어 빠지다, -어 치우다, -어 주다, -어 지다

먼저, 유형1의 경우에는 어휘적 성격이 강하면서도 보조용언의 일반적 범주 특성에 완전히 부합하는 부류이다. 이 유형은 보조용언의 일반적 범주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으로 어휘성도 강하기 때문에 문법화의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 (9) a. 다운이는 문제를 다 풀어 가니?
네. 문제를 다 풀어 가요.
b. 할아버지께서는 방에 누워 계시니?
네. 방에 누워 계세요.

그런데 김미영(1998)²⁵에 의하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에 대해서 문법화, 특히 마지막 단계 ‘접사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김미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언의 용례를 들어, ‘(-어) 가다’와 ‘(-어) 오다’의 접사화를 주장하였다.

- (10) a. 그 집에 불이 나서 다 타강께 큰일이다.

²⁵ 김미영(1998)은 접어화 단계를 세 단계 (접어화 이전의 단계[용언]→접어화 1 단계[보조용언]→접어화 2 단계[접어]→접어화가 완성된 이후의 단계[접사])로 나눴다.

- b. 그 일은 이제 다 끝내간께 걱정말거라.
- c. 섬이 똥똥 떠온께.

그리고 유형2의 경우에는 아직 보조용언의 성격을 최대한 유지하려 하지만 문법성이 강해서 이미 유형1과는 거리가 좀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 (11) a. 이모가 아기를 달래 주고 있다.
- b. 할머니께서 국수를 드시고 계신다.
- c. 그가 가고 난 뒤 나는 갑자기 외로워졌다.

또한 유형3의 경우에는 보조용언들의 문법화 진행이 가장 활발히 나타나는 편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보조용언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선행 용언은 제약이 적으므로 종류가 꽤 많아서 총체적으로 사용 빈도도 높아진다.

- (12) a. 영화는 정말로 남부럽지 않았다.
- b. 너는 왜 그렇게 거절하지 못하니?
- c. 지금 그 영화 꼭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유형4의 경우에는 보조용언의 일반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고 어휘성이 매우 강한 편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접사화와 같은 문법화의 뚜렷한 양상이 파악되지 않는다.

- (13) a. 영화는 어제 약속을 잊어먹었고, 철수도 어제 약속을 잊어먹었다.

- b. 영수는 밥 한 그릇을 금방 먹어 치웠고, 영희도 밥 한 그릇을 금방 먹어 치웠다.

그러나 ‘(-어) 대다’와 ‘(-어) 지다’, ‘(-어) 나다’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거의 접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였다. ‘대다’의 본용언으로서의 의미는 ‘달다’, ‘이유나 구실을 말하다’, ‘어떤 것을 목표로 삼다’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예문(7)을 보면, 보조용언 ‘(-어) 대다’은 동작이나 상태가 반복된다는 뜻이다. 이때는 본용언과의 의미의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접사의 의미와 훨씬 더 가까워진다.²⁶

- (14) a. 누가 자꾸 떠들어 대는 거야?
 b. 우리들이 그를 멍청이라고 놀려 댔다.
 c. 그 녀석은 너무 까블대는 것이 문제다

웨이자오魏蛟(2013)는 문법화를 다루려면 통시적인 방법과 공시적인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⁷ 그리고 문법화 현상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적’ 현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²⁶ 마지막에 서로 부합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으로 보조용언을 네 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한지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 같다.

²⁷ 문법화의 ‘-화(化)’에 초점을 둔 통시적 연구 방법으로 언어사에서 관찰되는 문법화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나, 언어의 공시적 현상을 간과하기 쉽다. 공시적 연구 방법으로 담화·화용론적 측면에서부터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언어의 역동적인 현상, 즉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나 언어의 통시적 현상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이 두 방법이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해 주는 것이 ‘문법화’를 다루는 바른 태도일 것이다.

서서히 일어나는 점진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문법화 현상 중에 여러 가지 기제에 해당되는 단계는 Bybee et al.(1994)가 제시하였던 것을 다시 인용하였다. Bybee et al.는 여러 기제들을 문법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어떠한지를 <그림4>와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4>、 문법화의 단계별 기제

초기	중기	후기
-----은유-----	추론	
→	일반화	
		-----조화-----→
		-----흡수-----→

(Bybee et al. 1994, 이성하 1998:267, 魏蛟 2013 재인용)

<그림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법화 과정에 따라 은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미 자체가 소실되기 때문에 은유는 문법화의 초기에만 작용하며, 조화나 흡수는 의미기능이 아주 약화된 다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후기에만 나타나게 된다. 일반화는 의미를 점점 약화시키는 기제이기 때문에, 후기에 가서 실제로 의미요소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으므로 사용되지 못한다. 그러나 추론은 대화의 의미협상 과정에서 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화의 전 단계에 거의 고루 사용된다. 따라서 어떤 문법화 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기제는 반드시 어느 한 가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기제가 동시에, 혹은 연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해서 보면 한국어 문법화에 대한 연구는 학자마다 사용된 용어는 차이가 있지만 큰 분류는 대체적으로 똑같이 세 단계로 나누고 언급해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논의도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 한국어 문법화의 과정

표 4

호관수(1999)	본용언 > 보조용언 > 접어 > 접사
최대희(2002)	본용언 > 으뜸풀이씨 > 으뜸 풀이씨+매임 풀이씨 > 문법 요소
김미영(1996), 박주형(2013)	용언 > 보조용언 > 접어 > 접사

2.2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용법 분류

보조용언은 문법화가 진행되면서 원래 본용언으로서의 어휘적 의미가 추상화되어 문법적 의미로 나타낸다. 박선옥(2005)에 의하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를 가지고 있는 문법적 의미는 크게 ‘상 의미’와 ‘양태 의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은 어떤 행위나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동작이 진행인지 반복인지 완료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²⁸ 양태는 문장이 서술하는 사건이나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다. 즉, 양태란 화자가 문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김지은(1998)에 의하면 대부분의 양태가 비사실적인 명제와 관련되는 반면에, 평가는 사실적인 명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평가의 의미 영역들은 이들이 과연 양태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영역인데, 한국어 양태범주의 특성상 평가를 양태의 의미범주에 포함시켰다. 한국어에서 보조용언의 일부를 비롯하여 평가와 관련된 많은 표현들이 양태로 보아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다.²⁹

상용언이 일반용언과 구별되는 통사적 현상 중에서 가장 확연한 것은 이들이 다른 용언 뒤에서만 실현된다는 점이다. 다른 용언 뒤에서 실현된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하는 것인데, 하나는 다른 용언, 더 정확히는 그 용언을 포함하는 하나의 명제에 의존하여서만 쓰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순서에 있어서 본용언보다 뒤에서 실현된다는 점이다. 전자는 양태용언이나 상용언을 포함하여 기능용언의 기능과 관련된 본질적인 면이고, 후자는 한국어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양태를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 강세나 억양 등을 제외하고 문법적 단위로 실현되는 양태표현들만을 볼 때, 이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한 부류는 어절 형성에 있어서 의존적인 것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어절 형성에 있어서 독립적인 것들이다. 어절 형성에 있어서 의존적으로 실현되는 것들에는 양태를 표현하는 어미, 접사, 조사 등이 포함되고, 어절 형성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²⁸ 한국어의 경우 상은 보통 시제와 같이 묶어 한 번에 나타나서 시상이라고도 한다. 시상은 시제와 상을 말한다.

²⁹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서울 : 한국문화사, p. 20 & pp. 211~212 & pp. 217~218.

실현되는 것들에는 양태를 표현하는 부사, 동사, 형용사 등이 있다.

먼저,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나 ‘(-어) 오다’로 구성되는 구문은 기본적으로 문장 내용이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문장 전체가 표현하는 중심의미는 무엇인지에 따라 차이도 있기는 한다. 구문 중에서 문맥의 핵심은 문장 내용이 시간상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1 차 분류하고자 한다. 즉,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동작의 과정상에 초점을 놓여지는 것은 ‘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하고,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동작의 상태나 성질로 변화된 결과에 초점을 놓여지는 것은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는 상 의미로 드러난 때,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와 결합되는 선행용언의 유형에 따라 2 차 분류하고자 한다. 보조용언인 ‘(-어) 가다’나 ‘(-어) 오다’가 동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동작이나 행위가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문맥이나 선행동사의 종류에 따라 또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또한 보조용언인 ‘(-어) 가다’나 ‘(-어) 오다’가 [+상태성] 자질을 가진 동사나 ‘형용사+(-어) 지다’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선행용언의 상태로 지속적인 변화를 나타나거나 그러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보조용언인 ‘(-어) 오다’는 ‘(-어) 가다’와 달리, [+상태성] 자질을 가진 동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선행용언의 상태로 지속적인 변화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용언의 상태로 지속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는 양태 의미로 드러난 때,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와 결합된 후 전체 문맥에 대한 평가나 판단에 따라 또다시 세분화하고자 한다.

2.2.1 보조용언 ‘(-어) 가다’의 의미 용법

2.2.1.1 상 의미

계속 진행되는 행위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가 동작동사와 결합될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는 동작이 시간 선상의 이동이다. 그리고 시간적인 지향점을 갖는 경우에는 현재를 중심으로 이동의 방향성에 따라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사용을 구분한다. ‘(-어) 가다’에서 시간 선상의 이동은 현재부터 미래까지 진행해 가는 것이다.

- (15) a. 서울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간다. (임호빈, 2010)
b. 비가 그쳐 간다.
c. 그는 5년 동안 약 한 통을 다 먹어 간다. (김성화, 1991)

예문(15)를 보면, 보조용언인 ‘(-어) 가다’는 계속 진행되는 행위란 상 의미로 나타내는 것이다. 예문(15)중에서 보조용언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행동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행동이 진행 되는 시간적 이동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어) 가다’는 보조용언 구성으로서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동사 ‘변하다’와 ‘그치다’의 동작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15a)와 (15b)에서, ‘(-어) 가다’로 표시된 시간적인 의미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언제인가까지 ‘진행’을 표현한다. (15c)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언제인가까지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표시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다. (15c)와 같은 경우에는 문장 내용이 계속 진행되며 감소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즉,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언제인가까지 이 약은 결국 행위자에게 다 먹어버릴 것이다.

또한 계속 진행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른 보조용언 구성 ‘(-고)

있다'와 비교할 수 있다. 서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6) a. 눈이 썩이고 있다. (박선옥, 2005)
b. 눈이 썩여 간다. (박선옥, 2005)
c. (지금)혼자의 힘으로 살고 있다.
d. 앞으로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 갈 겁니다. (임호빈, 2010)

(16a)에서는 '눈'이 지금 썩이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데 (16b)는 '눈'이 썩이는 과정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언제인가까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단순히 화자가 말할 때 동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16a)과 다르다. (16c)에서는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데 (16d)는 앞으로도 계속 살겠다는 뜻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단순히 현재 상황만 나타내는 (16c)과 다르다.

거의 완료된 행위

선행용언의 행위는 완료를 묻는 경우에 동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 사용될 수 있다. 전에 언급한 (15c)처럼 이러한 예문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구어에서나 문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용법이라서 이러한 문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17) a. 다 먹었니? 응, 거의 다 먹어 가. (손세모들, 1996)
b. 문제를 거의 다 풀어 간다. (임호빈, 2010)
c. 그 일이 잘 되어 간다. (임호빈, 2010)

d. 집 짓는 일이 거의 다 끝나 갑니다. (임호빈, 2010)

예문(17)에서 예문(15)과 마찬가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언제인가까지 ‘진행’을 의미하는데 진행되면서도 감소적으로 변화될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선행용언인 동작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 앞으로 언제인가까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예문(17) 중에서 보조용언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진행되는 시간적 이동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곧 본용언인 ‘먹다’, ‘풀다’, ‘되다’ 그리고 ‘끝나다’ 등 완료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단속적 반복되는 행위

선행용언의 행위는 단순히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언제인가까지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문 전체에 의해 행위는 단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즉, 선행용언인 행위나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했다가 쉬었다가 하여, 반복해서 실현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³⁰

(18) a. 밤이 깊어지자 전등이 하나 들썩 꺼져 갔다.

(박선옥, 2005)

b. 우리 소는 일 년에 한 마리 씩 새끼를 낳아 갔다.

³⁰ ‘진행’이란 어떤 과정성이 있는 일에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또는 어떤 일을 치러 나가는 것이고, ‘지속’이란 어떤 상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진행’과 ‘지속’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참조 : 박선옥(2004), “외국어로서 한국어 보조동사 ‘가다’와 ‘오다’의 교육”, 漢城語文學, 제 23 집, pp. 161~186

(박선옥, 2005)

예문(18)은 전에 언급한 예문(15) (16) (17)이 나타나는 계속 진행되는 행위라는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다. 예문(15) (16) (17)은 어떠한 행위가 진행되는 시간 이동의 과정을 초점에 둔다고 하면 예문(18)은 동작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이라기보다는 ‘하나씩 들썩’과 ‘3백만씩’에 의해 단속적인 반복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같은 행위가 반복해서 실현되는 의미가 보조용언 ‘(-어) 가다’에 의해 표현된다.

지속적인 상태변화

한국어 보조용언인 ‘(-어) 가다’가 심리동사와 결합될 때 나타나는 의미는 동작동사와 결합될 때는 달리, 시간 선상의 이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19) a. 사람이 늙어 가면서 점점 욕심이 느나 그래. (손세모돌, 1996)
- b. 그 사진은 몇 해의 세월을 지니고 있는지 약간 누렇게 퇴색해 가고 있었다. (손세모돌, 1996)

예문(19)에서 보조용언인 ‘(-어) 가다’는 선행용언이 드러난 상태로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를 기준점으로 하여 앞으로 언젠인가까지라는 ‘시간 이동의 방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시간이 지향점으로 진행되면서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상태로 변화된다는 의미를 더 강조한 편이다. 예문(19)

내용들은 모두 선행용언 ‘늡다’와 ‘퇴색하다’에 따라 시간이 진행되면서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예문들이다. 그리고 예문(19)에서 나타난 선행용언인 ‘늡다’와 ‘퇴색하다’는 [+상태성] 자질을 가진 심리동사다.

또한 ‘형용사’나 ‘형용사+지다’의 결합 형식도 심리동사와 같은 지속적인 상태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선행용언이 형용사나 형용사에 ‘지다’가 결합된 형식일 때에는, 보조용언 구성 ‘(-어)가다’가 지속적인 상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

- (20) a. 신문에서는 도시의 공해가 심해 간다 한다.
 b. 신문에서는 도시의 공해가 (점점) 심해(져) 간다 한다.
 c. 날이 점점 어두워 간다. (박선옥, 2005)
 d.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e. 발걸음이 자꾸 느려 간다. (박선옥, 2005)
 f. 발걸음이 자꾸 느려져 간다. (박선옥, 2005)

예문(20)의 문장들은 형식으로 보면 보조용언 구성 ‘(-어)가다’와 결합된 형식은 똑같지 않은데 예문(19)와 같은 용법에 있어, 모두 지속적인 상태 변화의 의미 나타낸다.

2.2.1.2 양태 의미

위에서 언급한 상 의미 외에 한국어 보조용언은 화자의 심리적인 태로인 양태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보조용언 구성은 상 의미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양태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단지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동작의 과정상에 초점을 놓여지지 않고

동작의 상태나 성질로 변화된 결과에 초점을 놓여지는 것뿐이다. 문장 내용으로 표현되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 상황에 대하여 행위자나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사태에 참여하는가 하는 심리적 태도이다. 손세모듈(1996)³¹에 의하면, 화자의 내적 판단에 따른 위치, 거리, 방향 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동의 주체가 화자로부터 멀어져 가는가 접근하는가를 표시하기도 하고, 상태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생각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된다. 선행용언이 동사인 경우는 화자의 공간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용사인 경우는 변화의 방향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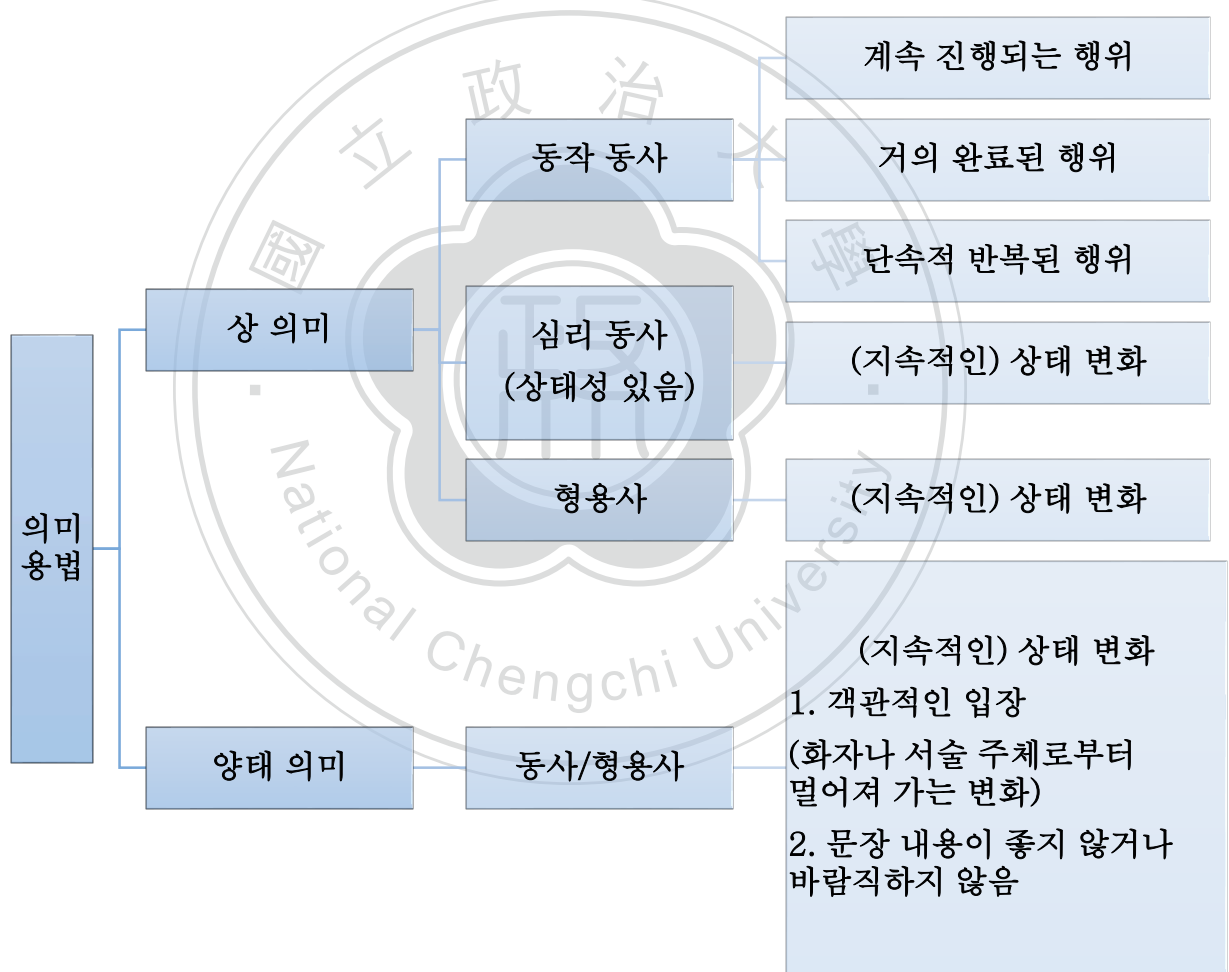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가 양태 의미로 표현될 때, 화자가 전체 문맥 의미에 대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거나 문장 내용이 나쁜 쪽,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나타낸다.

- (21) a. 날이 더워서 꽃이 시들어 간다. (박선옥, 2005)
- b. 음식이 상해 간다. (박선옥, 2005)
- c. 물가가 점점 높아 간다. (박선옥, 2005)

예문(21)에서 보조용언인 ‘(-어) 가다’는 선행용언의 상태로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서 변화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더 강조하고 표현한다. 예문(21a)와 (21b)에서 선행용언인 ‘시들다’와 ‘상하다’는 다 일반 상태에서 사람들이 바라지 않거나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어서 보조용언 ‘(-어) 가다’ 구성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예문(21c)에서 선행용언인 ‘높다’는 보통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문맥을 따지고 보면 시간이 진행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높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일반

³¹ 손세모듈(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서울 : 한국문화사, pp. 134~138.

상태에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거나 싫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서 역시 보조용언 ‘(-어) 가다’ 구성과 결합하여 양태 의미를 드러낸다.



◎ 그림 5, 보조용언 ‘(-어) 가다’의 의미 용법 분류

2.2.2 보조용언 ‘(-어) 오다’의 의미 용법

2.2.2.1 상 의미

계속 진행되는 행위

한국어 보조용언 ‘(-어) 오다’가 동작동사와 결합될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는 동작이 시간 선상의 이동이다. 보조용언 ‘(-어) 오다’에서 시간 선상의 이동은 예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오는 것이다.

- (22) a. 저는 그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셔 왔다. (임호빈, 2010)
b. 공부 안 하고 뭐 했니? 원고를 써 왔지. (손세모돌, 1996)
c. 그는 고된 훈련을 견디 왔다. (박선옥, 2005)

예문(22)를 보면, 보조용언인 ‘(-어) 오다’는 계속 진행되는 행위란 상 의미로 나타내는 것이다. 예문(22)에서 보조용언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행동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행동이 진행되는 시간적 이동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어) 오다’는 보조용언 구성으로서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동사 ‘모시다’, ‘쓰다’와 ‘견디다’의 동작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22)에서, ‘(-어) 오다’로 표시된 시간적인 의미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 언제인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표현한다.

단속적 반복되는 행위

보조용언 ‘(-어) 오다’는 ‘(-어) 가다’와 똑같이 동작이나 행위가 단속적으로 반복 진행됨을 나타내기도 한다.

- (23) a. 우리는 한 달에 한번 씩 모여 왔다. (박선옥, 2005)
 b. 한글은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박선옥, 2005)

예문(23)은 전에 언급한 예문(22)가 나타나는 계속 진행되는 행위라는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다. 예문(22)는 어떠한 행위가 진행되는 시간 이동의 과정을 초점에 둔다고 하면 예문(23)는 동작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이라기보다는 ‘한번 씩’과 문맥 속에 드러난 ‘한동안’에 의해 단속적으로 반복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같은 행위가 반복해서 실현되는 의미가 보조용언 ‘(-어) 오다’에 의해 표현된다.

지속적인 상태

보조용언인 ‘(-어) 오다’는 ‘(-어) 가다’와 달리, [+상태성] 자질을 가진 동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선행용언의 상태로 지속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행용언이 드러난 상태로 지속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24) a. 나는 지금까지 그의 말을 사실로 믿어 왔다. (박선옥, 2005)
 b.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껴 왔다. (박선옥, 2005)
 c. 영희는 철수를 미워 해 왔다. (박선옥, 2005)
 d. 민수는 순이를 그리워 해 왔다. (박선옥, 2005)

예문(24)의 선행용언 ‘믿다’, ‘느끼다’, ‘미워하다’ 그리고 ‘그리워하다’는 사람의 정서나 감정을 나타내는 [+상태성] 자질을 가지고 있으나 보조용언 ‘(-어) 오다’와 결합되어도 상태 변화의 의미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상태성] 자질을 가진 선행용언과 결합한 보조용언 ‘(-어) 오다’는 역시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과거부터 기준점까지 상태의 지속 표현임을 알 수 있다.³²

지속적인 상태 변화

한국어 보조용언인 ‘(-어) 오다’가 형용사와 결합될 때 나타나는 의미는 동사와 결합될 때는 달리, 시간 선상의 이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 변화의 의미를 드러낸다.

- (25) a. 그가 (항상) 옳아 왔다. (박선옥, 2005)
 b. 쇠고기 값은 (항상) 비싸 왔다. (박선옥, 2005)
 c. 새벽이 밝아 온다. (박선옥, 2005)
 d.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내 마음이 아파져 왔다. (박선옥, 2005)

예문(25)에서 보조용언 ‘(-어) 오다’는 지속적인 상태 변화의 의미를 표현한다. 역시 상태 변화의 과정성에 초점이 있음을 드러내

³²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에 의한 것이기에 이른바 과거 표시의 형태소 ‘-었-’과 결합이 자연스럽고 또한 보조용언 ‘(-어) 오다’와 결합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감정 경험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 오다’의 결합은 어려우며 보조용언 ‘(-어) 가다’와 결합이 가능하다. 참조 : 박선옥(2005),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서울 : 역락, p.143

주는 것으로, 화자가 전체 문맥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다르지만 형용사에 결합되어 상태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조용언 ‘(-어) 가다’가 실현되는 의미는 똑같다. 그러나 (25a)와 (25b)에서는 부사어 ‘항상’을 사용하면 상태 변화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고, 보조용언 ‘(-어) 오다’에 의해 상태가 지속되는 의미가 나타난다.³³

2.2.2.2 양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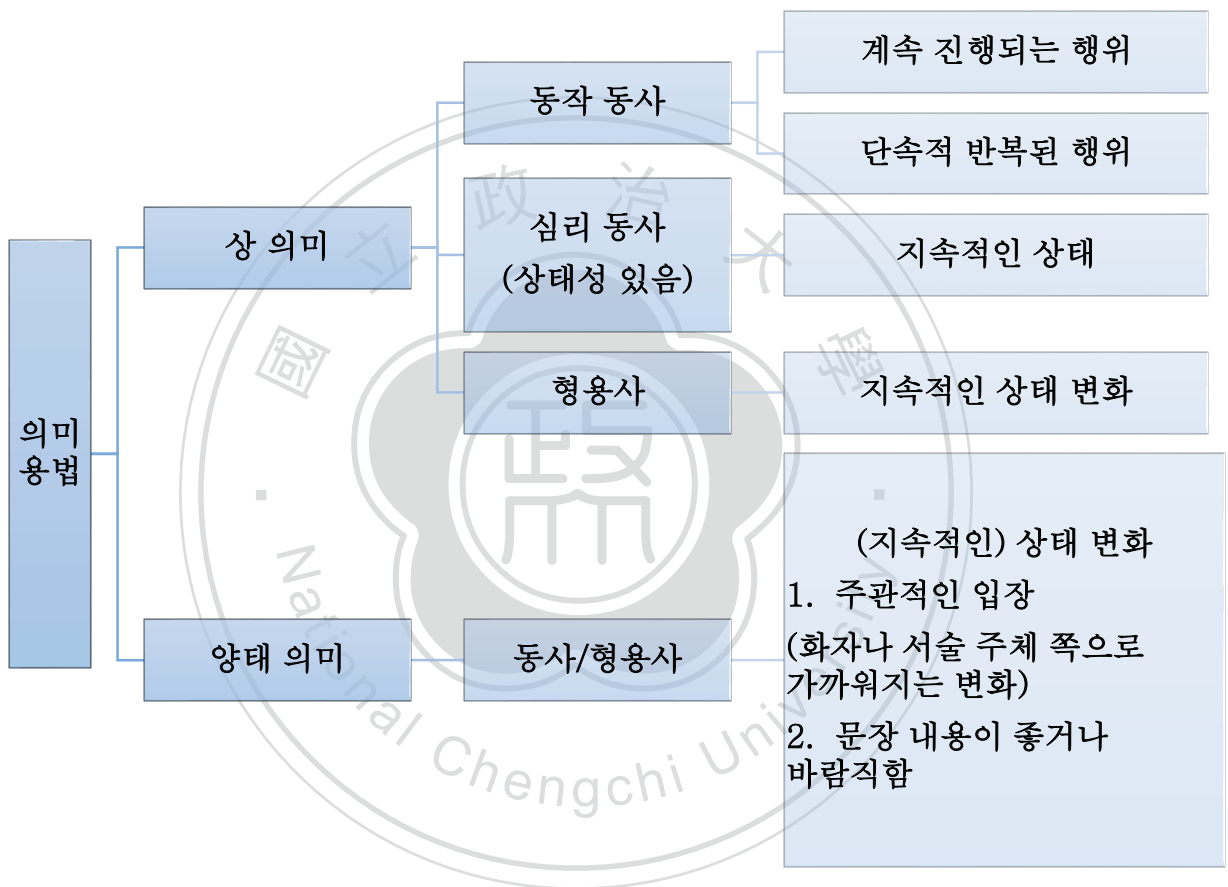
보조용언 ‘(-어) 가다’와 같이 보조용언 ‘(-어) 오다’도 위에서 언급한 상 의미 외에 화자의 심리적인 태로 양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26) a. 뼈마디가 아파 온다. (박선옥, 2005)
 b.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프 오기 시작했다.
 c.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껴 왔다. (박선옥, 2005)

예문(26)에서 보조용언인 ‘(-어) 오다’는 선행용언의 상태로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서 동작의 상태나 성질로 변화된 결과에 초점을 놓여지는 것이다. 예문(26)에서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고, 선행용언인 ‘아프다’, ‘고프다’ 그리고 ‘느끼다’는 상태가

³³ (25a) 와 (25b)에서 보조용언 ‘(-어) 오다’는 그가 옳은 상태가, 쇠고기 값이 비싼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됨을 표현하고 있다. 부사어 ‘항상’을 사용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데 같은 상태의 지속 의미가 더욱 잘 나타난다. 참조 : 박선옥(2005),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서울 : 역락, p. 144

화자 쪽으로 지속됨을 드러낸다. 그리고 예문(26c)에서 문장 주체인 ‘그’의 내부 심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문장 내용과 가까움을 알 수 있다.



◎ 그림 6. 보조용언‘(-어) 오다’의 의미 용법 분류

3. 말뭉치에 근거한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의미 분석

제 3 장에서 한국어 화자들 실제 사용 양상을 대표할 수 있는 21 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제 2 장에서 제시된 의미 용법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말뭉치 자료 중에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로 구축된 용례들을 세분화하겠다.

본 연구는 수량이 방대한 민족문화연구원의 현대 한국어 말뭉치 용례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순구어와 신문 두 가지의 장르를 범위로 설정하여 검색된 ‘(-어) 가다’와 ‘(-어) 오다’구문 약 7 만개 구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규모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각 의미 용법은 계량적으로 보면, 어떠한 용법의 사용빈도가 높은지 어떠한 용법이 자주 쓰지 않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가 가진 여러 의미 용법의 사용 분포 양상도 명시적으로 밝힐 수 있다. 또한, ‘(-어) 가다’와 ‘(-어) 오다’가 보조용언으로서의 여러 용법들은 본용언으로서의 용법들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밝힐 수 있다.

3.1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실제 사용 양상 분포

3.1.1 보조용언 ‘(-어) 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 자료는 21 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 자료이다. 그 중에서 순구어와 신문 두 가지의 장르를 범위로

설정하여 검색된‘(-어) 가다’ 구문은 약 2 만개 구문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말뭉치에 근거한 현대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의 사용 양상 분포 결과는 <표 5>와 <표 6>과 같다.

<표 5>、 말뭉치에 근거한 보조용언 ‘(-어) 가다’ 의 사용 양상 분포 - 순구어類

표 5

보조용언‘(-어) 가다’의 의미 분석			비율
상 의미	동작 동사	① 계속 진행되는 행위	76.23%
		② 거의 완료된 행위	7.55%
		③ 단속적 반복된 행위	6.42%
	심리동사	④ (지속적인) 상태 변화	7.92%
	형용사	⑤ (지속적인) 상태 변화	1.89%
양태 의미	동사/형용사 (지속적인) 상태 변화	a. 객관적인 입장 (화자나 서술 주체로부터 떨어져 가는 변화)	83.4%
		b. 문장 내용이 좋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음	16.6%

<표 6>、 말뭉치에 근거한 보조용언 ‘(-어) 가다’ 의 사용 양상 분포 - 신문類

표 6

보조용언‘(-어) 가다’의 의미 분석			비율
상 의미	동작 동사	① 계속 진행되는 행위	69.81%
		② 거의 완료된 행위	5.66%

		③ 단속적 반복된 행위	7.55%
	심리동사	④ (지속적인) 상태 변화	5.66%
	형용사	⑤ (지속적인) 상태 변화	11.32%
양태 의미	동사/형용사 (지속적인) 상태 변화	a. 객관적인 입장 (화자나 서술 주체로부터 멀어져 가는 변화)	81.13%
		b. 문장 내용이 좋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음	18.87%

21 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위에 제시된 표와 알맞은 예문 분석은 다음과 같다.

계속 진행되는 행위 :

- (28) a. 그분들은 모두 평생 동안 정치를 해와 정치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워 가며 정치해야겠다고 생각해요.
- b. 최근 일부 젊은 작가들이 상업주의에 영합해 섹스나 불륜, 미시적 개인체험에 함몰돼 가고 있습니다.
- c. 16 세기 역사의 역전(逆轉)으로 우리는 서양의 눈과 생각을 답아 갔지만 동양문명의 유산은 자랑스럽다.
- d. 따라서 민간운동의 최대과제는 남북 균축운동을 기초로 이를 확산해 가는 데 큰 사명이 있다고 믿는다.

예문(28)에서 보조용언인 ‘(-어) 가다’는 계속 진행되는 행위란 상의미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 가다’는 보조용언

구성으로서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동사 ‘배우다’, ‘함몰되다’, ‘앉다’ 그리고 ‘확산하다’의 동작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행동이 진행 되는 시간적 이동의 과정성에 놓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문(28)의 경우에는 ‘시간 이동의 방향성’의미도 포함된다.

거의 완료된 행위 :

- (29) a. 국내 정치도 제대로 돼 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b. ...병원 저 병원을 온종일 헤매고 돌아다니며 치료를 구걸하고, 끊임없이 굶고 병들어 죽어 가는 빈민들의 주검들을 수없이 엮하고, 빈민가 녀마주이 청년들의 구역다툼을 말리기엔 연약한...
 c. 이제 과거청산은 대체로 끝나 가는 것 같다.
 d. 토의로 학습 문제를 풀어 가는 공부 방법으로 큰 성과를 올리는 학교가 있다.

예문(29)에서는 선행용언의 동작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 앞으로 언제인가까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보조용언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진행 되는 시간적 이동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곧 본용언인 ‘되다’, ‘죽다’, ‘끝나다’ 그리고 ‘풀다’등 완료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문(29)의 경우에는 ‘시간성 이동의 방향성’ 의미도 포함된다.

단속적인 반복 행위 :

- (30) a.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 갈 작정이다”고 말했다.
- b. ...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는 고아 소녀, 에밀리가 인생 역정을 잘 이겨내며 조금씩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려 내 따뜻함과 생명력을 동시에 느끼게 해 주는 감동 영화이다.
- c. ...구해서 동동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매일 유치원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가는 게 좋다.
- d. 반짝 오름세를 보였던 채소 가격이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

예문(30)에서 보조용언 ‘(-어) 가다’는 선행용언의 동작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이라기보다는 ‘하나씩’과 ‘조금씩’에 의해 단속적인 반복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같은 행위나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했다가 쉬었다가 하여, 반복해서 실현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예문(30)의 경우에는 ‘시간 이동의 방향성’의 의미도 포함된다.

지속적인 상태변화 (심리동사):

- (31) a. ...있어서는 ‘많을수록 좋다’는 식으로 일방 주장만 펼게 아니라 국민의 부담도 고려해 가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도록 여야가 절충하기 바란다.
- b. 눈에 익은 한자로 의미를 짚작해 가며 ‘암호문’을 풀려고 노력하지만 이내 손을 들기 마련...
- c. ...판으로 1 백만 부를 돌파하는 베스트셀러작가가

됐으며 「사랑을 ...」은 서울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담은 두 번째 작품으로 지난해 여름 출판됐다.

- d. ...등 주변 4강과 국제관계를 고려해 가며 풀어야 한다며...오는 28일 북-미 회담이 열리는 등 해법을 찾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진행...

예문(31)에서 보조용언 ‘(-어) 가다’는 선행용언의 상태로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언제인가까지라는 ‘시간 이동의 방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시간이 지향점으로 진행되면서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상태로 변화된다는 의미를 더 강조한 편이다. 또한 예문(31)에서 나타난 선행용언인 ‘고려하다’, ‘짐작하다’ 그리고 ‘적응하다’는 전부 다 [+상태성] 자질을 가진 심리동사다.

지속적인 상태 변화 (형용사):

- (32) a. ...갈수록 심각해 가는 바다의 오염으로 연안양식장에서 어류가 폐죽음을 당하고 조개류 등이 폐사하는 사고가 빈발...
- b. "세상이 어떻게 돼 가길래 자고나면 달라져""뭘 좀 싱싱하고 신나는거 없을까""새로운 세상 보려거든 휴거나 믿지"...
- c.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가는 발을 밤새도록 주물러드린 보람도 없이.
- d. ...적잖은 당혹감도 있지만 남북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매우 높아 가는 것 같습니다.

예문(32)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심리동사와 결합된 형식과 똑같이 지속적인 상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심각하다’, ‘식다’ 그리고 ‘높다’ 등의 형용사들이 나타나는 상태로 지속적인 변화를 표현된다. 그리고 예문(32)의 경우에는 ‘시간 이동의 방향성’의 의미가 포함된다.

객관적인 입장 :

- (33) a.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 갈 작정이다”고 말했다.
- b. 반짝 오름세를 보였던 채소 가격이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
- c. 따라서 민간운동의 최대과제는 남북 군축운동을 기초로 이를 확산해 가는 데 큰 사명이 있다고 믿는다.
- d. ...적잖은 당혹감도 있지만 남북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매우 높아 가는 것 같습니다.

예문(33)에서 보조용언 구성은 상 의미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양태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단지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동작의 과정상에 초점을 놓여지지 않고 동작의 상태나 성질로 변화된 결과에 초점을 놓여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조용언이 나타나는 것은 문맥의 대한 판단이 어떠한가가 아닌 고작 단순히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진술이다.

문장 내용이 좋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음 :

- (34) a. ...미·소양극 상태가 무너져 다극화하면서 곳곳에서 지역분쟁이 불붙고 있거나 그 우려가 높아 가는 가운데 각국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b.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가는 발을 밤새도록 주물러드린 보람도 없이.
- c. ...적잖은 당혹감도 있지만 남북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매우 높아 가는 것 같습니다.
- d. 국내 정치도 제대로 돼 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예문(34)는 예문(33)과 마찬가지로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동작의 과정상에 초점을 놓여지지 않고 동작의 상태나 성질로 변화된 결과에 초점을 놓여지는 것이다. 예문(34)에서 전체 문맥을 따지고 보면 일반 상태에서 사람들이 바라지 않거나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서 역시 보조용언 ‘(-어) 가다’ 구성과 결합하여 양태 의미를 드러낸다.

3.1.2 보조용언 ‘(-어) 오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 자료이다. 그 중에서 순구어와 신문 두 가지의 장르를 범위로 설정하여 검색된 ‘(-어) 오다’ 구문은 약 5만개 구문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말뭉치에 근거한 현대한국어 보조용언 ‘(-어) 오다’의 사용

양상 분포 결과는 <표 7>와 <표 8>과 같다.

<표 7>、말뭉치에 근거한 보조용언 ‘(-어) 오다’의 사용 양상
분포 - 순구어類

표 7

보조용언‘(-어) 오다’의 의미 분석			비율
상 의미	동작 동사	① 계속 진행되는 행위	81.51%
		② 단속적 반복된 행위	6.54%
	심리동사	③ 지속적인 상태	5.43%
	형용사	④ 지속적인 상태 변화	6.52%
양태 의미	동사/형용사 (지속적인) 상태 변화	a. 주관적인 입장 (화자나 서술 주체로부터 떨어져 가는 변화)	83.74%
		b. 문장 내용이 좋거나 바람직함	16.26%

<표 8>、말뭉치에 근거한 보조용언 ‘(-어) 오다’의 사용 양상
분포 - 신문類

표 8

보조용언‘(-어) 오다’의 의미 분석			비율
상 의미	동작 동사	① 계속 진행되는 행위	79.17%
		② 단속적 반복된 행위	8.33%
	심리동사	③ 지속적인 상태	8.33%
	형용사	④ 지속적인 상태 변화	4.17%

양태 의미	동사/형용사 (지속적인) 상태 변화	a. 주관적인 입장 (화자나 서술 주체 쪽으로 가까워지는 변화)	91.67%
		b. 문장 내용이 좋거나 바람직함	8.33%

21 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위에 제시된 표와 알맞은 예문 분석은 다음과 같다.

계속 진행되는 행위:

- (35) a. 지난해 3당통합에 의한 거대여당 출범이래 그 필요성이 더욱 확산되어 왔다던 야권의 통합이 오늘 신민 민주 양당의 합당선언으로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다.
- b. 그는 오랜 정치생활을 해 온 사람으로서, 또 집권당의 대표로서 깊은 자책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 c. ...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수령을 고려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 d. 70년대 초반의 이중곡가제 도입이래 20년이상 지속되어 온 현행 양곡관리제도는 수급및 가격형성에 있어 시장기능을 도외시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예문(35)에서 보조용언인 '(-어) 오다'는 계속 진행되는 행위란 상의미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 오다'는 보조용언 구성으로서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동사 '확산되다', '생활하다',

‘통보하다’ 그리고 ‘지속되다’의 동작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행동이 진행 되는 시간적 이동의 과정성에 놓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문(35)의 경우에는 ‘시간 이동의 방향성’의미도 포함된다.

단속적인 반복 행위 :

- (36) a. ...이러한 여러 가지 담론들을 언론에서 다루기 전에 이미 교육현장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문제를 배태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 b. ...을 갖춘 방갈로 40 개를 설치한 뒤 하루 4 만원에서 15 만원씩 받고 관광객들을 숙박시켜 오다 적발돼 기소됐다.
- c. ...나라 제주도·광주에서의 독창회, 교향악단과의 협연 등 한 달에 보통 10 번씩 무대에 서 왔다.
- d. 이 프로그램은 그 동안 매주 토요일 방영돼 왔으나 다음 달 3일부터 월~금요일 오후 5시 15분부터 55분까지 매일 40분씩 방영된다..

예문(36)에서 보조용언 ‘(-어)오다’는 선행용언의 동작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이라기보다는 ‘조금씩’과 문맥 속에 드러낸 ‘한동안’에 의해 단속적인 반복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같은 행위나 동작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했다가 쉬었다가 하여, 반복해서 실현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예문(36)의 경우에는 ‘시간 이동의 방향성’의미도 포함된다.

지속적인 상태 :

- (37) a. 그러나 평소 정치의 신뢰가 대단히 저하됐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정치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국민들이 정치 걱정하지
않고…
- b. …대의 궁핍, 가난이 투영된 결핍과 고통의
세계이거나 가부장적 제도의 억압공간으로 인식돼
왔다고 평가한 반면, 가라타니씨는 『일본에서는
가부장제 전통이 없었고 명치유신 이후 군국주의
- c. …북남 정상회담은 유엔가입과 관계없이 희망해
온 것이다.
- d. 평소 전교조의 주장에도 귀담아 들을 것이 많다고
느끼 왔습니다.

예문(37)에서 보조용언 ‘(-어) 오다’는 [+상태성]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행용언인 ‘생각하다’, ‘인식되다’, ‘희망하다’ 그리고 ‘느끼다’와 결합하여 상태 변화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상태의 지속됨만을 드러낸다. 또한 예문(37)의 경우에는 ‘시간 이동의 방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상태 지속’의 의미를 더 강조한 편이다.

지속적인 상태 변화 :

- (38) a. 이 자금의 속성상 전통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왔던
부동산 투자를 선호할 것이 분명하다.
- b. …동 중인 9기의 원전 가운데 중 저준위 핵
폐기물의 자체 저장 용량이 한계점에 가까워 오는
곳이 6 군데나 된다.

- c. ...체의 3.3%인 6 억원수준에 불과해 행정 비용 등을 고려, 부과실익이 있는지 논란이 있어 왔다.
- d.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가난을 미화하고 부를 경계하는 기풍이 강하게 있어 왔다.

예문(38)에서 보조용언 ‘(-어) 오다’는 지속적인 상태 변화의 의미를 표현한다. 여기에서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높다’, ‘가깝다’ 그리고 ‘있다’ 등의 형용사들이 나타나는 상태로 지속적인 변화를 표현된다. 그리고 예문(38)의 경우에는 ‘시간 이동의 방향성’의 의미가 포함된다.

주관적인 입장 :

- (39) a. 한국 방송 개발원(원장 윤혁기)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해 온 지역민방의 허가가능대상지역과 운영주체구성 프로그램 편성 비율 등에 관한 초안을 발표하고 9 일하오 2 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 b. 그러나 불교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스님이 깨달음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다소 무관심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의 여론도 늘 있어 왔다.
- c. 일본 기업의 부도덕성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한국여성자존심 하나로 이때까지 버텨 왔던 것이죠.
- d. 서울시경 특수대는 폭력조직을 만들어 합숙 훈련까지하면서 칭부폭력을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 ‘김포파’두목 권오섭씨(27 폭력전과 4 범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등 일당 11...

예문(39)에서 보조용언 구성은 상 의미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양태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단지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동작의 과정상에 초점을 놓여지지 않고 동작의 상태나 성질로 변화된 결과에 초점을 놓여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조용언이 나타나는 것은 문맥의 대한 판단이 어떠한가가 아닌 고작 단순히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진술이다.

문장 내용이 좋거나 바람직함:

- (40) a. 이 자금의 속성상 전통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왔던 부동산 투자를 선호할 것이 분명하다.
- b. ... 흑자시대인 지난 86년 이후 4년 동안 국민들의
 ▪ 저축이 늘어나면서 총투자율을 증가해 왔다..
- c. ...쟁을 벌여왔지만 추곡과 안기부법을 어느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원만히 타협될 것으로 낙관해 왔다.
- d. ...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엄격한 인정기준 때문에 직업병인정 혜택을 받지 못해 온 이황화탄소 중독환자들이 직업병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예문(40)은 예문(39)와 마찬가지로 문장 내용이 선행용언인 동작의 과정상에 초점을 놓여지지 않고 동작의 상태나 성질로 변화된 결과에 초점을 놓여지는 것이다. 예문(40)에서 전체 문맥을 따지고 보면 일반 상태에서 사람들이 바라거나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서 역시 보조용언 ‘(-어) 오다’ 구성과 결합하여 양태 의미를

드러낸다.

3.2 보조용언으로서의 ‘가다’와 ‘오다’와 본용언의 유연성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는 본동사 ‘가다’와 ‘오다’가 가진 어휘적인 의미에 의해 설정된 기준점에 따른 방향성의 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보조용언이다. 그러므로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의미를 연구하려면 먼저 본동사로서의 ‘가다’와 ‘오다’의 의미를 밝혀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본용언으로서의 ‘가다’와 ‘오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를 주로 한국의 대표적인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그리고 “연세한국어사전”, 3종의 사전에 나타난 뜻풀이와 용례를 비교하면서 같은 뜻을 분류하고 정리한다.³⁴

3.2.1 ‘가다’의 사전적 의미

본용언으로서 ‘가다’의 뜻풀이는 다음 <표9>와 같다.

<표 9> ‘가다’의 사전적 의미

표 9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I	1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I (1)(ㄱ) (사람이나 탈것이 어떤	I ①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³⁴ 소림(2011), “한국어 ‘가다/오다’의 중국어 대응 형식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이동하다. 예)산에 가다.	곳으로) 자리를 옮겨 움직이다. 예)서점에 가다.	움직이다. 예)서점에 가다.
	수레,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운행하거나 다니다. 예)섬으로 가는 비행기	I (1)(ㄴ) (사람이 어찌하러 어떤 장소에) 자리를 옮겨 움직이다. 예)영수는 방금 밥 먹으러 갔다.	
2	일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하다. 예) 친구들 만나러 동창회관으로 가는 길이야.	I (5)(사람이 어떤 모임이 나 자리에)참석하기 위하여 움직이다. 예)내일 동창회에 갈 거니? I (8)((주로 '가는'의 풀로 쓰여))(길이나 장소가 어떤 곳으로)향하거나 이어지다. 예)그녀는 2층으로 가는 계단에 쓰러져 있었다. II (5)(사람이 어떤 곳으로 이정한	

		<p>차수를)높이어 자리를 옮기다.</p> <p>예)우리는 맥줏집으로 2 차를 갔다.</p>	
3	<p>지금 있는 곳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다.</p> <p>예) 공부하러 도서관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p>		<p>I ② 일을 보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움직이다.</p> <p>예)너 아까 당분간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고 했지?</p> <p>I ⑦ (어디로) 향하거나 이어지다.</p> <p>예)우체국을 나온 그들은 모골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p>
4	<p>직업이나 학업, 복무 따위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p> <p>예)군대에 가다.</p>	<p>I (3)(사람이 특정한 조직이나 기관에)참가하거나 소속되다.</p> <p>예)군대에 가기 전에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p> <p>II (3)(사람이</p>	

			<p>특정한 조직이나 기관을) 들어가 그에 소속되다.</p> <p>예)그는 삼대독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다.</p>	
II	1	<p>직책이나 자리를 옮기다.</p> <p>예)이번 인사 발령으로 총무과로 가게 되었다.</p>	<p>I (16)(사람이 어떤 직책이나 부서, 기관 따위로)자리를 옮기다.</p> <p>예)그는 이번 인사에서 총무부로 가게 되었다.</p>	<p>I ④ (어떤 일에 복무하거나 종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곳으로) 옮기다.</p> <p>예) 영업부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가든가 해요.</p>
	2	<p>물건이나 권리 따위가 누구에게 옮겨지다.</p> <p>예)모든 재산은 아들에게로 갔다.</p>	<p>I (23) (물건이나 권리가 사람에게) 넘겨지거나 이전되어 소유되다.</p> <p>예) 동생은 나에게 사탕이두 개 더 갔다면 올었다.</p> <p>I (27) (물건이 사람이나 그의 손에) 옮겨지거나 쓰이다.</p>	<p>I ⑨ (누구의) 소유로 되다.</p> <p>예)아버지가 죽고 나면 첩의 아들한테 재산이 다 갈 수도 있잖아요?</p>

		예)무엇이든 민수 손에 갔다 하면 남아나질 않는다.	
3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쏠리다. 예)좋은 물건 쪽으로 자꾸 눈이 가서 다른 것은 사고 싶지 않은걸.	I (13) (무엇에 관심이나 시선이) 쏠리고 몰리다. 예)그에게 자꾸 시선이 간다.	I ⑧(ㄱ) (무엇이) 움직여 서 (어디에) 있게 되다. 예) 그는 노상 술에만 마음이 가 있었다. (ㄴ) (눈길이 어디로) 쏠리다. 예) 그녀는 어머니가 걸치고 있는 드레스에 시선이 갔다.
4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예)장사꾼들 사이에 시비가 오고 가는지 소란스러웠다.	I (9)(ㄱ) (소식이나 연락이)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전해진다. 예) 합격자는 따로 연락이 갈 겁니다. (ㄴ) (전화 신호가) 상대에게 전해지다. 예) 신호는 가는데 아무도 받지 않는군요.	Ⅲ④ (상대방 전화에 연결되었다는 신호 소리가)들리다. 예) 신호가 가는데 전화는 받지 않는다. IV① (말이나 소식 등이)전하여지거나 알려지다. 예)아,글쎸. 기다리면 곧 연락이 갈 거지다.

	5	<p>((‘손해’따위가 명사와 함께 쓰여)) 그러한 상태가 생기거나 일어난다.</p> <p>예)우리를 도와주신 그분 집안으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p>	<p>I (22)(무엇이 손해나 피해가 생기거나 미치다.</p> <p>예) 장사에 손해가 갔다면 제가 모두 보상해 드리겠습니다</p>	<p>IV ⑤ (이익이나 손해가 어떠한 대상에)미치다.</p> <p>예) 교실은 한 학생에게 한 평도 차례가 가지 않았다.</p>
III	1	<p>어떤 상태나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다.</p> <p>예)복지 국가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p>	<p>I (10)((주로 '가는'의 꼴로 쓰여))(무엇이 어떤 상태나 상황으로) 뜻을 두고 지향하다.</p> <p>예) 러시아는 시장 경제로 가는 혼란스러운 전환기에 놓여 있다.</p> <p>I (11)(무엇이 어떤 일이나 상태에) 이르러 닿다.</p> <p>예)우리 대표 팀은 본선에 가기도 전에 탈락하고 말았다.</p>	<p>I ⑤ (어떠한 상태나 사태에)지향하다.</p> <p>예) 이것이 통일로 가는 첫 단계다.</p> <p>I ⑥ (어떠한 상태나 사태에)이르다.</p> <p>예)본선도 가기 전에 예선에서 미리 김빠지는 격이구먼.</p> <p>I ⑩ (일이)진행되다.</p> <p>예) 새벽으로 갈수록 오히려 그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p>
	2	<p>한쪽으로 흘러가다.</p> <p>예)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다.</p>		
	3	<p>동력원으로 하여 작동하다.</p> <p>예)이 차는 전기로만 간다.</p>		
	4	<p>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다.</p> <p>예)액자가 왼쪽으로 쏠 간 것 같다.</p>		
IV	1	<p>금, 줄, 주름살,</p>	<p>I (17)(물체에</p>	<p>IV ② (줄, 금</p>

	<p>흠집 따위가 생기다.</p> <p>예)벽에 금이 가서 위험하다.</p>	<p>금이나 주름이) 그어져 생기다.</p> <p>예)유리창에 금이 갔다.</p>	<p>따위가) 생기다. 그어지다.</p> <p>예) 그는 다리뼈에 금이 갔다.</p>
2	<p>((‘무리’,‘축’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건강에 해가 되다.</p> <p>예)너무 무리하다가는 몸에 축이 간다.</p>	<p>I (24)(신체나 그 일부가)기능이 아주 나빠지다.</p> <p>예) 오심 대에 접어드니까 몸이 가는구나.</p>	<p>Ⅲ③ (건강이나 몸의 기능이)나빠지거나 망가지다.</p> <p>예)쉬지 않고 일만 하다간 몸이 무리가 갈거야.</p>
3	<p>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일정한 곳에 이른다.</p> <p>예)검사 결과는 내일에 가서야 나온대.</p>	<p>I (12) (기운이나 증상이 일정한 기간이) 계속되거나 유지되다.</p> <p>예)이번 감기에 걸리면 몸살기가 사나흘 정도 간다고 한다.</p>	<p>I ⑫ (주로 ‘가서’, ‘가면’의 꼴로 쓰이어) (어느 때나 지점에)이른다.</p> <p>예) 지금 우리들이 주장하는 게 결국에 가서는 받아들여진다고 확신합니다.</p>
4	<p>일정한 대상에 미치어 작용하다.</p> <p>예)고장 난 기계에</p>	<p>I (14)(무엇에 손이나 발이)향하여 움직이다.</p>	<p>Ⅳ⑥(ㄱ) (어떠한 대상에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 미치다.</p>

		그의 손이 가면 떨쩍해진다.	예)심심하니까 자꾸 과자에 손에 간다.	예) 그는 자신에 손때가 안 간 데 없는 물건을 만져 모았다. (ㄴ) (어떤 일에 노력이나 손질이) 들거나 필요하다. 예) 사람의 손이 가면 어김없이 움직여 주는 기계. (ㄷ) (어떤 것을 향하여 손이) 움직이다. 예) 나는 선뜻 물수건에 손이 안 간다.
	5	((‘손’, ‘품’ 따위와 함께 쓰여))어떤 일을 하는 데 수고가 많이 들다. 예)농사일에는 품이 많이 간다.	I (28)(일이나 대상에 손이나 품이) 필요하거나 들다. 예)잡채는 손이 많이 가는	
V	1	어떤 대상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라지다. 예)기차는 이미	I (25)(무엇이 어디로)보이지 않게 없어지다. 예)지갑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다.	I ⑩ (무엇이) 보이지 않게 없어지다. 예) 감사라도 걸려서 그 돈 어디 갔느냐고 하면

	<p>갔다.</p>	<p>I (15)(무엇이 일정한 가격이나 수준이) 될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하다. 예)이 보석은 시가로 삼백만 원은 같 것이다.</p>	<p>뭐라고 말할 테냐? II ④(ㄱ) (어떠한 수주이나 정도에)이르다. 예) 말이나 앓으면 중 간이나 가지. (ㄴ) (일정함 값이나 정도에) 이르다. 예) 이런 집은 시가가 얼마나 같까?</p>
2	<p>((‘시간’따위와 함께 쓰여))지나거나 흐르다. 예)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았네.</p>	<p>I (2)(ㄱ) (일정한 시간이나 계절이)흘러 지나다. 예)겨울이 가면 곧 봄이 오겠지요. (ㄴ) (일정한 시기가) 지나 끝나다. 예)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다. (7) (시간이 어떤 때나 지점에)흘러 이르게 되다. 예) 그녀는 말년에 가서야 자신의 과오를 뉘우쳤다.</p>	<p>III ① (시간이)흐르다. 지나다. 예) 해가 갈수록 겨울을 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III ② (어떠한 시기가) 끝나다. 지나다. 예)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 도다. I ⑫ (주로 ‘가면’, ‘가다가’의 꼴로</p>

				쓰이어)(어떠한 상태로)지속하거나 진행한다. 예) 오빠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
3	<p>기계 따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p> <p>예)시계가 가는 거야 마는 거야?</p>	<p>I (20)(ㄱ) (시계나 자동차 따위의 기계가)제 기능대로 작동하다.</p> <p>예)자네 고물차 아직도 잘 가나?</p> <p>(ㄴ) (자동차나 기중기가 어떤 동력원으로) 작동하거나 움직이다.</p> <p>예)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발명되었다.</p>	<p>Ⅲ⑤ (기계 따위가) 움직이거나 작동하다.</p> <p>예) 길을 들었더니 차가 잘 가네요.</p>	
4	<p>외부의 충격이나 영향으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가 되다.</p> <p>예)칫눈에 가서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다고?</p>	<p>I (26)(사람이)마치 죽은 것처럼 정신을 잃다.</p> <p>예)저 친구, 소주 석 잔에 완전히 갔어.</p>		

	5	<p>전기 따위가 꺼지거나 통하지 않다.</p> <p>예)전깃불이 가서 들어오지 않는다.</p>	<p>I (21)(ㄱ) (전기가) 통하지 아니하여 꺼지다.</p> <p>예)전기가 갔는지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p> <p>(ㄴ) (불이)기운이 사위어 꺼지다.</p> <p>예)야궁아의 불이 갔다.</p>	
	6	<p>((완곡하게))사람이 죽다.</p> <p>예)억울하게 간 넛을 추모했다</p>	<p>I (6)(완곡하게 이르는 말로) (사람이)생명이 끊어지다.</p> <p>예)그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비명에 갔다.</p>	<p>Ⅲ⑥ (사람이)죽다.</p> <p>예) 어른이 이렇게 가시니 좀처럼 믿어지지 않고 아연할 따름입니다.</p>
VI	1	<p>어떤 일에 대하여 납득이나 이해, 짐작 따위가 되다.</p> <p>예)그 설명은 수궁이 간다.</p>	<p>(4) (사람이 이해나 짐작, 판단 따위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다.</p> <p>예)네 말을 듣고 보니 당시의 상황이 짐작이 간다.</p>	<p>IV③ (어떠한 감정이 누구에게)향하다.</p> <p>예) 그에게는 믿음이 안 간다.</p> <p>IV④ (생각이나 이해가)미치다.</p> <p>예) 그는 여잔지 남자지 구별이 안</p>

			간다.
2	<p>((‘-이’나 ‘-에’대신에 ‘중간 정도’, ‘최고’ 따위와 같은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가치나 값, 순위 따위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여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른다.</p> <p>예)이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명문이다.</p>		
3	<p>((‘물’, ‘맛’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원래의 상태를 잃고 상하거나 변질되다.</p> <p>예) 콩나물무침이 시큼하게 맛이 갔어.</p>	<p>I (19)(음식이 맛이나 물이) 상하거나 변하다.</p> <p>예)생선이 물이</p>	
4	<p>((‘때’, ‘얼룩’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때나 얼룩이 잘 빠지다.</p> <p>예)이 비누는 때가 잘 간다.</p>	<p>갔구나.</p>	

VII	1	<p>어떤 경로를 통하여 움직이다.</p> <p>예)산길을 가다.</p>	<p>II (2)(사람이나 탈것이 어떤 곳을)지나거나 통과하며 이동하다.</p> <p>예)안 국동 부근을 가거나 통과하며 이동하다.</p>	<p>II ① (어떤 표면을 길삼아서) 움직이다. 이동하다.</p> <p>예) 어떤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구덩이 속에 빠진 호랑이를 만났습니다.</p>
VIII	1	<p>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p> <p>예)엄마에게 도망을 가다.</p>	<p>II (1)(사람이 어떤 곳으로 뜻한 일을)하기 위해 움직이다.</p> <p>예)문병을 가다.</p>	<p>II ② 어떤 일을 하려고 있던 곳을 떠나 움직이다.</p> <p>예)이사를 가다.</p> <p>II ③ 결혼을 하다.</p> <p>예) 애가 학교 졸업하면 기정 씨에게 시집을 가겠단다.</p>
	2	<p>노름이나 내기에서 얼마의 액수를 판돈으로 걸다.</p> <p>예)한 찬에 10 만 원을 갔다.</p>	<p>II (7)(사람이 일정한 금액을)노름의 판돈으로 걸다.</p> <p>예)이번 판에 삼촌은 3 천원을 갔다.</p>	

IX	1	<p>((시간을 나타내는 ‘며칠’ 따위와 함께 쓰여))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유지되다.</p> <p>예) 월급쟁이가 평생을 가야 집한 채 살까?</p>	<p>I (18)(ㄱ) (사물이나 현상이 어떠한 기간까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p> <p>예)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에 대한 논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p> <p>(ㄴ) ((주로 ‘이대로’, ‘이렇게’ 따위의 부사와 함께 ‘가면’, ‘가다가’의 꼴로 쓰여)) (그 상태로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지속되거나 진행하다.</p> <p>예) 이대로 간다면 시즌 우승도 문제없다.</p>	<p>II ⑤ (일정한 시간을 통하여) 지속하다.</p> <p>예) 억지로 모은 재물은 삼 대를 가기 어렵다.</p>
----	---	--	--	---

(肖琳 2011 인용)

3.2.2 ‘오다’의 사전적 의미

본용언으로서 ‘오다’의 뜻풀이는 다음 <표10>과 같다.

<표 10>、 ‘오다’의 사전적 의미

표 10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I	1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 혹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 예) 군에 간 친구가 휴가를 받아 학교에 왔다.	I (1) (사람이 어디 하는 사람이)있는 쪽으로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 예)편지를 받는 즉시 집으로 오너라. I (11)(탈것이 어디에)말하는 이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다. 예)설악산으로 오는 버스는 12시 30분이 막차라고 하던데.	I ①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움직이다. 예)난 결국 가방을 챙겨 터미널에 오고 말았다. I ② (일을 보기 위해)다른 곳에서 이 곳인 일정한 장소로 움직이다. 예) 개 오늘 학교 안 와요.
	2	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학업 따위를 위하여	I (8)(ㄱ) 직업이나 학업을 위해 말하는 곳이 있는	I ③ 입학하거나 들어가다. 예) 어찌다

		<p>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옮기다.</p> <p>예) 저희 대학에 온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p>	<p>쪽으로 옮기다.</p> <p>예)음악 선생님이 새로 온다고 한다.</p>	<p>인문계를 오기는 했지만 죽기보다 싫어.</p> <p>I ④ (어떠한 직책 등을 가지고) 부임하다. 예)그는 마치 이 대학에 시간 강사로 온 기분이다.</p> <p>IV ② (무엇을 할 목적으로)움직이다. 예)담임선생님은 새로 전근 오신 여선생님이었다.</p>
II	1	<p>수레,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말하는 이가 있는 쪽을 향하여 운행하다.</p> <p>예)제주도로 오는 비행기가 안개 때문에 연착되었다.</p>		
	2	<p>물건이나 권리</p>	<p>II (8)(ㄴ) (사람이</p>	<p>I ⑧ 무엇이</p>

	<p>따위가 자기에게 옮겨지다.</p> <p>예)이 물건이 우리 집으로 올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p>	<p>어느 집단에 어떤 직책으로) 발령을 받다.</p> <p>예)그는 우리 학교에 코치로 오다.</p>	<p>닿거나 전달되거나 도착하다.</p> <p>예)드디어 집에서 돈이 왔다.</p>
3	<p>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말하는 사람에게로 쏠리다.</p> <p>예)못시선이 우리가 앉은 자리도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p>	<p>I (17)(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말하는 사람에게 쏠리다.</p> <p>예) 많은 학생들의 시선이 나에게 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냥 천천히 걸어갔다.</p>	
4	<p>소식이나 연락 따위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전하여지다.</p> <p>예)어머니에게서 회사로 전화가 왔다.</p>		<p>I ⑨ (소식, 연락 등이) 누구에게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p> <p>예)너한테 소포가 왔더라.</p>
5	<p>전기가 흘러서 불이 켜지거나 몸에 전하여지다.</p>	<p>I (12)(전기나 몸이나 전선 따위에) 흐르거나</p>	

		예)우리 마을로 전기가 온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켜지다. 예)스위치를 넣었는데 전기가 안 오네요.	
Ⅲ	1	운수나 보람, 기회 따위가 말하는 사람 쪽에 나타난다. 예)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I (3) (사건이나 현상이)일어나거나 이르다. 예)그녀에게 행운이 왔다. I (10)(차례나 기회가)자기 몫으로 되다. 예)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Ⅱ ③ (운수나 보람 등이)나타나다. 예)괴롭고 아픈 다음에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아픈것, 곧 그것이 복이란다. Ⅲ ③ (변화 등이) 나타난다. 예)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던 영애에게 변화가 왔다. Ⅲ ④ (차례나 순서가)되다. 예)저 같은 원주민에 게 차례가 오겠어요?
	2	느낌이나 뜻이	I (13)(느낌이나	Ⅲ ① (어떠한

	<p>말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다.</p> <p>예)그의 말에서 따뜻한 느낌이 내게 오는 것을 느꼈다.</p>	<p>말, 생각 따위가 말하는 사람에게) 전해져 이르게 되다.</p> <p>예)울산 덕의 충고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다.</p>	<p>느낌이)떠오르다.</p> <p>예)그 순간 내게 어떤 느낌이 왔다.</p>
3	<p>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다.</p> <p>예)이제 목적지에 다 왔다.</p>	<p>I (14) (사람이) 목적하는 곳에 닿다.</p> <p>예)이제 다 왔다.</p>	<p>I ⑤ 어떠한 위치에 오다.</p> <p>예)내가 제일 뒤에 왔는데 그 때까지도 몇 사람 남아 있더군요.</p> <p>I ⑦ 무엇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다.</p> <p>예) 몇 권 없나 보던데, 그런 귀중한 책이 우리 학생들 손에까지 올 기회가 있겠니.</p>
4	<p>어떤 대상에 어떤 상태가 이르다.</p> <p>예)7년간의</p>		<p>I ⑥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다.</p> <p>예)이미 사태는</p>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도 평화가 왔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었다.
5	<p>일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위치를 옮기다.</p> <p>예)너 동창회에 올 거니?</p>	<p>Ⅱ(1)(ㄱ) (사람이 어떤 일을)할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옮기다. 예) 일주일 전에는 선회가 면회를 왔더군.</p> <p>Ⅱ(1)(ㄴ) (사람이 어떤 행동을)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과 가까워지다. 예)이사를 오다.</p>	<p>Ⅳ① (어떠한 일을 하러)일정한 장소로 움직이다.</p> <p>예)작년 일월, 세란이 상희와 함께 세배를 왔을 때였다.</p>
6	<p>건강에 해가 되다.</p> <p>예)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다리에 충격이 왔다.</p>	<p>I (16)(건강 또는 몸이나 몸의 일부에 무리가 생기게 되다. 예)아스팔트에서 오랫동안 조깅을 하면 무릎에 무리가 오게 되다.</p> <p>I (4) (생리적</p>	

		<p>현상 따위가) 몸에 일어나다. 예) 몸살이 오는지 온몸이 쭈신다.</p>	
7	<p>(('-에'대신에 '- 까지'가 쓰이기도 한다))길이나 깊이를 가진 물체가 어떤 정도에 이르거나 닿다. 예)수영장 물이 목까지 온다.</p>	<p>I (9)(무엇이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도달하여 미치다. 예)물이 어른 가슴까지 오는 웅덩이일지라도 아이들에게는 무척 위험할 수가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다.</p>	<p>I ⑩ 어떠한 기준이나 정도에 가 닿거나 이르다. 예)시냇물이 무릎까지 온다.</p>
8	<p>((주로 '와서'꼴로 쓰여))((- 에'대신에 시간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말하는 때나 시기에 이르다. 예)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하면 어떡하니?</p>	<p>I (2)ㄴ (주로 '와서', '와서는', '와서야'의 꼴로 시간 부사어 뒤에 쓰이어) '어떤 시점'에 이르는 뜻을 나타내는 말. 예) 나의 어머니는 최근에 와서 서서히 혼담을 추진하려</p>	<p>I ⑪ (주로 '와서', '와서야'의 꼴로 쓰이어) 어떤 때나 지점에 이르다. 예)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 후회해 본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p>

			한다.	
IV	1	물체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다. 예)선이 우리 쪽으로 더 온 것 같다.	I (18)(물체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기울어지거나 치우치다. 예)기둥이 이리로 더 온 듯하다.	
V	1	비, 눈, 서리나 추위 따위가 내리거나 닥치다. 예)비가 오다.	(6)(눈이나 비 따위가)하늘에서 내리다. 예)눈이 오다.	II ① (비나 눈 등이)내리다. 예)이거 왜 갑자기 가을에 소나기나 오고 그래?
	2	질병이나 졸음 따위의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거나 생기다. 예)감기가 오는지 몸이 으슬으슬 춥다.		II ④ 잠에 들거나 들기 시작하다. 예)나는 졸음이 자꾸 와서 하품을 삼키고 또 삼키고 있었다. III ② (어떠한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다. 예)그는 전신에

			마비상태가 와서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3	어떤 때나 계절 따위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닥치다. 예)여름이 벌써 왔다.	I (2)(ㄱ) (일정한 때나 철이)오거나 이르다. 예)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I (2)(ㄷ) 주로 ‘오는’의 꼴로 쓰여, ‘이번’, ‘바로 다음의’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오는 가을에 있을 전시회 작품 준비로 지원은 거의 매일 바쁘다. I (2)(ㄹ) 닥치거나 나타나다. 예) 통일의 그날 오기를 바란다.	II ②(ㄱ) (일정한 때나 철이)되다. 예)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ㄴ) (어떠한 때나 세상이) 닥치거나 나타나다. 예)통일의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VII (주로 ‘오는’의 꼴로 쓰이어)바로 다음의. 예)그 집 큰아들 결혼이 오는 토요일이래요.
VI	1 어떤 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하여 생겨나다.	I (7) (사건이나 현상이)어떤 원인이나 근거를 생겨 일러나다.	VI (어떠한 원인에서 그 결과로)일이나 현상이 생겨 나타나다.

		예) 성공은 부단한 노력으로부터 온다.	예) 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마련이다.	예) 그 혼란은 경제적 변화로부터 왔습니다.
	2	어떤 현상이 다른 곳에서 하여지다. 예) 우동은 본에서 온 말이다.		
VII	1	어떤 경로를 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치를 옮기다. 예) 빗길을 오다가 미끄러졌다.	II (2)(사람이 어떤 길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옮기다. 예) 빗길에 운전 조심해서 오너라.	V 어떠한 길을 통하여 어디로 움직이다. 예) 먼 길을 어렵게 왔는데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VIII	1	(('-을' 성분은 주로 서술성이 있는 명사가 온다)) 어떤 목적 혹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I (5)(보낸 것이) 이르러 닿다. 예) 며칠을 기다렸는데도	

	<p>말하는 이가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기다.</p> <p>예) 병원에 문병을 오곤 했다.</p>	<p>답장을 오지 않다.</p>	
2	<p>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여 그 집안 식구가 되었다.</p> <p>예) 그녀가 나에게 시집을 오고 싶어 했다.</p>	<p>Ⅱ(3)(여자가 시집을, 또는 남자가 장가를) 결혼을 하여 그 집안의 식구가 되었다.</p> <p>예) 시집을 오다.</p>	<p>Ⅳ③ 결혼을 하다.</p> <p>예) 할머니는 열여덟 살에 시집을 왔다.</p>

(肖琳 2011 인용)

4.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 중국어와의 대비

제 4 장에서는 한국어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는 각 의미 용법에 해당되는 중국어 대응 표현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만약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이 보어가 아닐 경우, 어떠한 표현에 해당되는지도 정리할 것이다.

중국어 ‘去’와 ‘來’는 방향보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 기능이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기능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자세히 따지고 보면, 서로 유사하지만 그 의미 용법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중국어 방향보어의 범주가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와 중국어에서 방향보어

‘去’와 ‘來’의 대응 표현을 살펴보고 비교할 것이다.

여기서 제 2 장에서 선행연구에 따라 제시된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의미 용법 분류를 바탕으로 한다. (<그림 5>와 <그림 6>은 아래의 표로 바뀐다.)

보조용언 ‘(-어) 가다’의 의미 용법 분류		
상 의미	동작 동사	① 계속 진행되는 행위
		② 거의 완료된 행위
		③ 단속적 반복된 행위
	심리동사	④ (지속적인) 상태 변화
	형용사	⑤ (지속적인) 상태 변화
양태 의미	동사/형용사 (지속적인) 상태 변화	a. 객관적인 입장 (화자나 서술 주체로부터 떨어져 가는 변화)
		b. 문장 내용이 좋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음

보조용언 ‘(-어) 오다’의 의미 분석		
상 의미	동작 동사	① 계속 진행되는 행위
		② 단속적 반복된 행위
	심리동사	③ 지속적인 상태
	형용사	④ 지속적인 상태 변화
양태 의미	동사/형용사 (지속적인) 상태 변화	a. 주관적인 입장 (화자나 서술 주체로부터 떨어져 가는 변화)

		b. 문장 내용이 좋거나 바람직함
--	--	--------------------

4.1 보조용언‘(-어) 가다’와 ‘(-어) 오다’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

4.1.1 보조용언‘(-어) 가다’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

계속 진행되는 행위

- (41) a. 서울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간다.
 首爾每天都在改變。
- b. 눈이 쌓여 간다.
 雪將會一直累積(下去)。
- c. 앞으로는 혼자 힘으로 살아 갈 겁니다. 今後我會靠自己的力量活下去。

예문(41)을 보면, 보조용언 ‘(-어) 가다’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까지 계속 진행되거나 멀어짐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계속’의 의미를 표현할 때, 주로 부사어나 복합방향보어를 사용한다. 부사어 ‘一直’가 동사 앞에 쓰이거나 동사 뒤에 복합방향보어 ‘下去’를 붙여 쓰여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거의 완료된 행위

(42) a. 다 먹었니? 응, 거의 다 먹어 가.

吃完了嗎? 是的, 快吃完了。

b. 문제를 거의 다 풀어 간다.

問題幾乎都解決了。

c. 그 일이 잘 되어 간다.

那件事情大致上進行得很順利。

d. 집 짓는 일이 잘 됩니까?

예, 거의 다 끝나 갑니다.

蓋房子的事進行的順利嗎? 是的, 就快要結束(蓋好)了。

예문(42)를 보면, 보조용언 ‘(-어) 가다’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까지 계속 진행되거나 멀어짐을 나타낸다. 그리고 예문(41)과 달리, 여기서 선행용언인 동작이나 상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 앞으로 언제인가까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중국어에서는 ‘거의 완료된 것’의 의미를 표현할 때, 주로 부사어를 사용한다. 부사어 ‘快要、幾乎、都、大致上...’가 동사 앞에 쓰여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단속적 반복되는 행위

(43) a. 밤이 깊어지자 전등이 하나 둘씩 꺼져 갔다.

隨著夜幕的降臨, 電燈一盞(接著)一盞地(漸漸地)熄滅了。

b. 우리 소는 일 년에 한 마리 씩 새끼를 낳아 갔다.

我家的牛, 一年生一頭小牛。

예문(43)을 보면, 보조용언 ‘(-어) 가다’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이라기보다는 단속적인 반복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단속적 반복된 것’의 의미를 표현할 때, 주로 수사(수량사)를 중첩되어 사용한다. ‘수사+ (接著)+ 수사’가 동사 앞이나 뒤에 쓰여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³⁵

지속적인 상태 변화

- (44) a. 사람이 늙어 가면서 점점 욕심이 느나 그래.
人隨著年齡的老去，貪念也漸漸增強了。
- b. 그 사진은 몇 해의 세월을 지니고 있는지 약간 누렇게 퇴색해 가고 있었다.
這張照片不知道經歷了多少歲月的逝去，漸漸地發黃退色了。

예문(44)를 보면, 보조용언 ‘(-어) 가다’는 선행용언에 따라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지속적인 상태 변화’의 의미를 표현할 때, 주로 부사어나

³⁵分指數量短語表示以個體為單位分別計數的意思，它由數量短語「一 M」重疊組成，形式可分為兩種：A 式是「一 M 一 M」，如：「一個一個」、「一步一步」、「一天一天」等；B 式是「一 MM」，如：「一個個」、「一步步」、「一天天」等。此外「一」重疊為「一一」，相當於「一個一個地」，也就是分指數量短語。量詞或借用為量詞的名詞重疊後表示「每一」的意思，如：「個個」、「人人」、「家家」、「年年」等，因為它指一類事物中的每一個個體，所以叫遍指數量短語。

參照：房玉清(2008)，實用漢語語法，北京：北京語言大學出版社，頁 286-287。

단순방향보어를 사용한다. 정도 부사어 ‘漸漸、越來越…’가 동사 앞에 쓰이거나 동사 뒤에 단순방향보어 ‘去’를 붙여 쓰여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 (45) a. 신문에서는 도시의 공해가 (점점) 심해(져) 간다 한다.
 報紙上說都市的公害漸漸變(越來越)嚴重了。
 b.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天色漸漸變(越來越)暗了。
 c. 발걸음이 자꾸 느려(져) 간다.
 腳步漸漸變(越來越)慢了。

예문(45)는 예문(44)와 마찬가지로 보조용언 ‘(-어) 가다’는 선행용언에 따라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지속적인 상태 변화’의 의미를 표현할 때, 주로 부사어를 사용한다. 정도 부사어 ‘漸漸、越來越…’가 동사 앞에 쓰여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표 11>、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 와 중국어 대응

표 11

보조용언‘(-어) 가다’의 의미 용법 분류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
상 의미	동작 동사	① 계속 진행되는 행위
		② 거의 완료된 행위
		“會一直…下去”、 “會繼續…下去”、 “一直(以來)都…”
		“快要…了”、 “幾乎…了”、

			“大致上…了”
		③ 단속적 반복된 행위	“數量詞+(接著)+數量詞”、 “時間副詞+數量詞”
	심리동사	④ (지속적인) 상태 변화	“動詞+去”、 “動詞+掉了”、 “越來越…”
	형용사	⑤ (지속적인) 상태 변화	“漸漸變得”、 “越來越+形容詞”
양태 의미	동사/형용사 (지속적인) 상태 변화	a. 객관적인 입장 (화자나 서술 주체로부터 멀어져 가는 변화)	“一直(以來)都…”、 “時間副詞+都…”、 “越來越…” “漸漸變(得)”
		b. 문장 내용이 좋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음	“動詞+去”、 “動詞+掉了”、 “越來越…”、 “漸漸變得”

4.1.2 보조용언‘(-어) 오다’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

계속 진행되는 행위

(47) a. 저는 그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셔 왔다.

一直以來，我把那位老奶奶當成是母親一樣奉養。

- b. 공부 안 하고 뭐 했니? 원고를 써 왔지.
沒在讀書，那都在做什麼呢？一直在寫稿子。
- c. 그는 고된 훈련을 견뎌 왔다.
一直以來，他經歷了艱難的訓練。

예문(47)을 보면, 보조용언 ‘(-어) 오다’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현재를 중심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거나 가까워짐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계속’의 의미를 표현할 때, 주로 부사어를 사용한다. 부사어 ‘一直以來’가 동사 앞에 쓰여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단속적 반복되는 행위

보조용언 ‘(-어) 오다’도 ‘(-어) 가다’와 마찬가지로 단속적으로 반복 진행됨을 나타내기도 한다.

- (48) a. 우리는 한 달에 한번 씩 모여 왔다.
我們(一直以來)每個月聚會一次。
- b. 한글은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韓文字(從古至今、一直以來)經歷了很多的試煉。

예문(48)을 보면, 보조용언 ‘(-어) 오다’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현재를 중심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이라기보다는 단속적인 반복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단속적 반복된 것’의 의미를 표현할 때, 주로 부사어를 사용한다. 부사어 ‘一直以來、從古至今’가 동사 앞에 쓰여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지속적인 상태

(49) a. 나는 지금까지 그의 말을 사실로 믿어 왔다.

我到現在一直都相信那話是真的。

b.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껴 왔다.

他一直都有感受到她的愛。

c. 영희는 철수를 미워해 왔다.

영희一直都討厭철수。

d. 민수는 순이를 그리워해 왔다.

민수一直都很想念순이。

예문(49)의 선행용언 ‘믿다’, ‘느끼다’, ‘미워하다’ 그리고 ‘그리워하다’는 사람의 정서나 감정을 나타내는 [+상태성]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 보조용언 ‘(-어) 오다’는 선행용언인 상태가 현재를 기준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지속적인 상태’의 의미를 표현할 때, 주로 부사어를 사용한다. 부사어 ‘一直、都’가 동사 앞에 쓰여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지속적인 상태 변화

(50) a. 그가 (항상) 옳아 왔다.

他總是對的。

b. 쇠고기 값은 (항상) 비싸 왔다.

牛肉的價格總是貴的。

c. 새벽이 밝아 온다.

天(漸漸變得)亮了起來。

d.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내 마음이 아파져 왔다.

聽了那故事之後，我的心(漸漸變得)痛了起來。

예문(50)을 보면, 보조용언 ‘(-어) 오다’는 선행용언에 따라 현재를 중심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지속적인 상태 변화’의 의미를 표현할 때, 주로 부사어나 단순방향보어를 사용한다. 정도 부사어 ‘總是、漸漸、越來越…’가 동사 앞에 쓰이거나 형용사 뒤에 복합방향보어 ‘起來’를 붙여 쓰여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표 12>、 한국어 보조용언 ‘(-어) 오다’ 와 중국어 대응

보조용언 ‘(-어) 오다’의 의미 분석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	
상 의미	동작 동사	① 계속 진행되는 행위	“一直(以來) + 動 詞…”
		② 단속적 반복된 행위	“一直(以來)時間副 詞 +數量詞”
	심리동사	③ 지속적인 상태	“一直(以來)都+動 詞”
	형용사	④ 지속적인 상태 변화	“總是…”、 “漸漸變得…”、 “形容詞+了起 來”、
양태 의미	동사/형용사 (지속적인) 상태 변화	a. 주관적인 입장 (화자나 서술 주체로부터 멀어져 가는 변화)	“漸漸變得…”、 “動詞+了起來”、 “形容詞+了起 來”、 “動詞+了…”、 “到…程度了”、
		b. 문장 내용이 좋거나 바람직함	“漸漸變得”、 “動詞+了起來”、 “形容詞+了起來”、 “到…程度了”、 “越來越…”、

4.2 한국어 보조용언‘(-어) 가다’, ‘(-어) 오다’와 중국어 복합방향보어

한국어 ‘(-어) 가다’와 ‘(-어) 오다’는 보조용언으로서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중국어‘去、來’는 복합방향보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³⁶

가다2 [보조동사]

(주로 동사 뒤에서‘-어 가다’구성으로 쓰여)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 (책을 다 읽어 간다.)

去2 - 방향보어

① 用在動詞後，表示人或事物隨動作離開原來的地方。(다른 동사 뒤에 사용하여 동작이 화자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감을 나타냄)

(上去 (올라가다)/ 進去 (들어가다))

② 用在動詞後，表示動作的繼續…等。(동사 뒤에 쓰여 동작의 계속 따위를 나타냄)

(讓他說下去。(그분의 말을 계속 하게 줘요.))

오다2 [보조동사]

(주로 동사 뒤에서 ‘-어 오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

(날이 밝아 온다.)

³⁶ 장용(2011), “한국어 ‘오다/가다’와 중국어 ‘來/去’의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來2 [방향보어]

- ① 用在動詞後，表示動作朝著說話人的所在地方接近。(동사뒤에 쓰여 동작의 주체가 화자에게 접근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上來 (올라오다)/ 進來 (들어오다))
- ② 用在動詞後，表示結果或估量。(동사뒤에 쓰여 동작의 결과를 나타냄)
(聽起來 (듣기에는)/ 看起來 (보기에는))

보조용언‘(-어) 가다’와 ‘(-어) 오다’는 현재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속에는 ‘(-어) 오다’가 사용되고, 현재를 중심으로 이후의 일인 경우에는 ‘(-어) 가다’만이 사용 가능하다. 이럴 때에는 한국어와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방향보어는 ‘下去’, ‘下來’그리고 ‘起來’가 있다.

중국어 복합방향보어‘下去’, ‘下來’은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下去’은 지금부터 시작하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下來’은 예전 어느 때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됨을 의미한다.

보조용언 ‘(-어) 가다’는 형용사나 ‘형용사+지다’형에 결합되면 ‘지속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또 그것은 ‘점점/ 조금씩/ 차차/ 서서히’와 같은 정도 부사어와의 어울림 관계에서 잘 뒷받침 된다고 한다. 보조용언 ‘(-어) 가다’는 형용사나 ‘형용사+지다’와 결합할 때 중국어의 ‘V+ 下去/下來/起來’와 대응한다고 본다.

◎ <표 13> 한국어 보조용언‘(-어) 가다’와 대응되는 중국어
복합방향보어

보조용언‘(-어) 가다’의 용법 분류			대응되는 중국어 복합방향보어
상 의미	동작 동사	계속 진행되는 행위	“會一直…下去”、 “會繼續…下去”、
	심리동사	(지속적인) 상태 변화	“動詞+去”、
양태 의미	문장 내용이 좋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음		“動詞+去”、

표 12

◎ <표 14> 한국어 보조용언‘(-어) 오다’와 대응되는 중국어
복합방향보어

보조용언‘(-어) 오다’의 용법 분류			대응되는 중국어 복합방향보어
상 의미	형용사	지속적인 상태 변화	“形容詞+了起來”、
양태 의미	동사/형용사 (지속적인) 상태 변화	주관적인 입장 (화자나 서술 주체로부터 떨어져 가는 변화)	“動詞+了起來”、 “形容詞+了起 來”、
		문장 내용이 좋거나 바람직함	“動詞+了起來”、 “形容詞+了起來”、

표 13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손세모돌(1996), 박선옥(2005), 왕례량(2006), 이남(2009), 그리고 이양(2014)들이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의미 용법을 ‘계속 진행되는 행위’, ‘거의 완료된 행위’, ‘단속적 반복된 행위’, 그리고 ‘지속적인 상태 변화(추상적인 심리 상태 포함)’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한국어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에 대한 분석된 유형에 의하여, 다시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사람들의 실제 사용 양상이 각기 어떠한 분포를 갖는지를 검토한다. 이 대규모 말뭉치 자료를 가지고, 기존 분류했던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의 각 의미 용법의 기준을 확인하고 실제적 양상도 밝힌다. 그리고 한국어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는 각 의미 용법에 대응되는 중국어 보어 표현을 정리한다. 만약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이 보어가 아닐 경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정리한다.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와 중국어 대응 표현의 내용은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중국어 대응 표현

보조용언 ‘(-어) 가다’의 의미 용법 분류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
상 의미	동작 동사	
	① 계속 진행되는 행위	“會一直…下去”、 “會繼續…下去”、 “一直(以來)都…”
	② 거의 완료된 행위	“快要…了”、 “幾乎…了”、 “大致上…了”

		③ 단속적 반복된 행위	“數量詞+(接著) + 數量詞”、 “時間副詞+數量詞”
	심리동사	④ (지속적인) 상태 변화	“動詞+去”、 “動詞+掉了”、 “越來越…”
	형용사	⑤ (지속적인) 상태 변화	“漸漸變得”、 “越來越+形容詞”
양태 의미	동사/형용사 (지속적인) 상태 변화	a. 객관적인 입장 (화자나 서술 주체로부터 멀어져 가는 변화)	“一直(以來) 都…”、 “時間副詞+ 都…”、 “越來越…” “漸漸變(得)”
		b. 문장 내용이 좋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음	“動詞+去”、 “動詞+掉了”、 “越來越…”、 “漸漸變得”

한국어 보조용언 ‘(-어) 오다’와 중국어 대응 표현

보조용언 ‘(-어) 오다’의 의미 분석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	
상 의미	동작 동사	① 계속 진행되는 행위	“一直(以來) + 動詞…”
		② 단속적 반복된 행위	“一直(以來)時間副詞 + 數量詞”
	심리동사	③ 지속적인 상태	“一直(以來)都 + 動

			詞”
	형용사	④ 지속적인 상태 변화	“總是…”、 “漸漸變得…”、 “形容詞+了起來”、
양태 의미	동사/형용사 (지속적인) 상태 변화	a. 주관적인 입장 (화자나 서술 주체로부터 멀어져 가는 변화)	“漸漸變得…”、 “動詞+了起來”、 “形容詞+了起來”、 “動詞+了…”、 “到…程度了”、
		b. 문장 내용이 좋거나 바람직함	“漸漸變得”、 “動詞+了起來”、 “形容詞+了起來”、 “到…程度了”、 “越來越…”、

이 연구를 통해 한국어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어와 중국어 두 가지 언어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 자료는 양이 꽤 많은데 오류 비율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 이어서 한국어 보조용언 ‘(-어)가다’와 ‘(-어)오다’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에 대한 한국어교육 연구는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결과를 통해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와 ‘(-어) 오다’에 대해서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은 목표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어)

1.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풀이씨의 경우”, 어학연구 6-1, 서울 : 서울대
2.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용법편”,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3. 김미영(1998), “국어 용언의 접어화”, 서울 : 한국문화사
4. 김성화(1991), “국어의 상 연구”, 서울 : 한신문화사
5.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서울 : 한국문화사
6. 박선옥(2005),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서울 : 역락.
7.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한국어 3”, 서울 : [주]문진미디어.
8. 손세모들(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서울 : 한국문화사.
9.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서울 : 한국문화사
10.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 한국문화사.
11. 임호빈(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중국어)

1. 房玉清(2008), **實用漢語語法**, 北京 :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 鄧守信(2011)譯, 劉月華、潘文娛、故韡 著, **實用現代漢語語法**, 台北 : 師大書院有限公司。
3. 呂叔湘(1980),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 商務印書館。

학위 논문

1. 박주형(2013), “보조용언의 문법화와 어휘화 연구”,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 소림(2011), “한국어 ‘가다/오다’의 중국어 대응 형식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3. 웨이자오(2013), “한국어와 중국어 상의 문법화 대조 연구-‘-(고) 있-’ 과 ‘著’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4. 이남(2009), “한국어 보조용언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있다, 가다, 오다’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5. 이양(2014), “한국어 보조동사 ‘-어 가다, -어 오다’에 대한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6. 장용(2011), “한국어 ‘오다/가다’와 중국어 ‘來/去’의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7. 최대희(2002), “국어 풀이씨의 문법화 과정 연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학술 논문

1. 박선옥(2004), “외국어로서 二 한국어 보조동사 ‘가다’와 ‘오다’의 교육”, 漢城語文學, 제 23 집, pp. 161~186
2. 왕례량(2006), “한국어 보조용언과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 문법교육 5, 한국문법교육학회, pp. 261~297
3. 이남(2010), “한국어 ‘가다, 오다’와 중국어 대응 표현연구”, 문창어문논집, Vol: 47, pp. 109~130
4. 이연옥(2011), “이동 동사 ‘가다/오다’의 사용 양상에 대한 고찰 - 중국어 이동 동사 ‘去/來’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pp. 31~39.

5. 최해주(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보조용언의 의미 범주 설정 및 그 활동 방안”,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pp. 125~159
6. 호광수(1999),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 **조선대 인문과학연구**, 제 21 집, pp. 391~409

사전

(한국어)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3.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 한국어사전』
4. 이희자, 이종희(2008), “한국어 학습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중국어)

1.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1997), 現代漢語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2. 周行健(1997), 現代漢語規範用法大辭典, 学苑出版社。
3. 辭海編輯委員會 (1999), 辭海, 上海: 上海辭書出版社。